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칭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강 경 민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칭

지도교수 강 진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강 경 민

강경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위 원 장 천 현 득

부위원장 강 진 호

위 원 한 성 일

국문초록

일상적으로 허구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믿음에 덧붙여, 마이농주의의 주장과 달리 이름들은 오직 존재하는 대상들만을 지칭할 수 있다는 논제를 받아들인다면, 허구적 이름은 허구적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 나아가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는 허구적 대상 이외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구적 이름은 어떤 대상도 지칭하지 않는 빈 이름(empty name)이다.

그런데 허구적 이름이 빈 이름이라는 결론은 허구적 이름의 실제 사용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직관들과 충돌한다. 가령 코난 도일의 유명한 소설을 읽은 독자가 허구적 이름 '홈즈'를 지칭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홈즈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른 사람이 이전 이름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허구적 이름 '홈즈'를 지칭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이전 이름 사용자에 의해서 지칭된 것과 동일한 것을 지칭, 즉 공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허구적 이름이 빈 이름이라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대상에 대한* 지칭 및 공지칭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에 관한 현상은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관한 실재론 하에서 성공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양한 버전의 허구적 실재론 중, 나는 크립키(Kripke), 토마슨(Thomasson), 그리고 새먼(Salmon) 등에 의해서 지지되는 창조주의(Creationism)를 채택한다. 창조주의에 따르면, 허구적 캐릭터들은 존재한다. 그들은 작가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물로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게 되는 추상적 인공물이다. 따라서 창조주의 하에서는 허구적 이름이 지시체를 결여하는 빈 이름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허구적 이름은 존재하는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하는 진정한 이름일 수 있다.

그러나 허구적 캐릭터를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허구적 이름의 지칭과 관련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한 화자가 허구적 이름 '홈즈'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사용한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코난 도일이 창조한 바로 그 홈즈에 대한 지칭에 성공할 수 있는가? 나아가 어떤 조건 하에서 다른 사람이 지칭적으로 사용한 이름 '홈즈'가 이전

이름 사용자에 의해서 지칭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가? 설령 허구적 캐릭터들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관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는다.

본 석사 논문에서 나는 창조주의의 입장을 채택하면서도 어떻게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핵심 목표는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대한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reference-fixing) 및 공지칭(co-reference)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한 허구적 이름의 역사를 두 단계들로 나눌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최초의 명명식을 통해 허구적 이름이 도입되는 상황을 다룬다. 두 번째 단계는 명명식에 의해 도입된 이름이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상황을 다룬다. 허구적 이름의 역사를 두 단계로 나눈 이유는, 최초의 이름 사용과 후속하는 이름 사용이 서로 다른 관계들에 의해서 설명되기 때문이다. 허구적 이름의 도입 단계에서는 한 이름 표현과 그것의 지시체인 허구적 캐릭터 사이에 기술적 만족 관계에 의한 연결이 발생한다. 반면에 전파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이름 사용들 사이에 인과-의도적 연결이 발생한다. 두 단계들에서 드러나는 이질적인 관계들을 종합하면, 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는 지칭적으로 사용된 그 이름 표현과 인과-의도적으로 연결된 최초의 명명식에서 기술적 만족 관계에 의해 특정된 단일한 대상으로 결정된다.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기존 입장들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토마슨의 확장된 인과적 모델이 갖는 애매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명명식의 역할을 대신하는 토마슨의 "허구 내 명명식"은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의 특정에 실패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는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하는 것에 성공하는 특수한 형태의 기술적 의도를 제시한다. 나아가 프렌드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입장들과 달리, 나의 입장은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가 공지칭에 성공하기 위해 지시체가 만족하는 특정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허구적 캐릭터가 새로운 허구 작품에 편입될 때,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에 관한 우리의 직관적 판단들에 의해서 지지된다. 그러므로 나는 창조주의의 허구적 대상에 대한 독특한 이해 및 직접 지칭 이론

의 지시체-결정에 관한 교훈들을 계승하면서도, 허구적 이름이 어떻게 지칭 및 공지칭에 성공하는 것인지에 관한 매력적인 설명을 제안한다.

주요어: 허구적 대상, 허구적 이름, 지시체-결정, 공지칭, 창조주의, 직접 지칭 이론, 가장 이론

학번: 2018-27623

목 차

들어가면서 ····· **1**

제1장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대한 실재론과 반실재론 ····· **6**

1.1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과 반실재론 ····· 6

1.2 반실재론의 문제: 허구적 대상에 관한 문장의 참 해명 ··· 11

제2장 반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대한 해명 ····· **16**

2.1 지시체 결여에 따른 지칭 실패 ····· 16

2.2 프렌드의 정보 중심적 접근법 ····· 19

2.3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 사이의 관계 ····· 24

2.4 프렌드의 유사-공지칭 조건과 그에 대한 비판 ····· 34

제3장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창조주의 ····· **40**

3.1 실재론 노선 하에서 창조주의 ····· 40

3.2 의존적 대상으로서 허구적 캐릭터 ····· 45

3.3 허구적 대상의 이면성과 허구적 캐릭터 ····· 49

제4장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칭 ····· **57**

4.1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 문제 ····· 57

4.2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관한 토마슨의 주장과 애매성 문제 ··· 62

4.3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및 공지칭 조건 ····· 70

제5장 반론과 대응 ····· **88**

반례1: 지킬-하이드의 편입 ····· 88
반례2: ‘폴라’와 ‘펠마’의 공지칭 ····· 92

나가면서 ····· 94

참고문헌 ····· 99
Abstract ····· 102

들어가면서

철수가 영희에게 리사 수에 대해 소개해 주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철수는 이름 '리사 수'를 사용하면서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영희에게 리사 수에 대해 알려주었다. 가령 철수는 "리사 수는 기업가이다."라고 발화하였다. 이때 철수는 이름 '리사 수'를 사용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AMD 社의 최고경영자인 리사 수를 가리키는 것에 성공한다. 다음으로 철수의 소개 이후에 영희가 "리사 수는 기업가이군."이라고 발화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녀는 리사 수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해 상세히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 수'라는 이름 표현을 지칭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철수가 지칭했던 바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에 성공한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이름 '리사 수'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칭, 즉 공지칭에 성공한다.

이번에는 영희가 철수에게 허구적 대상인 점순이를 소개해 주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가령 영희는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다."라고 발화하였다. 이때 영희는 이름 '점순이'를 사용함으로써, 김유정의 단편 소설 『동백꽃』에 등장하는 한 허구적 대상을 가리키는 것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점순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는 철수는 영희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군."이라고 발화하였다. 이 경우 철수 역시 이름 '점순이'를 사용함으로써, 영희가 가리킨 것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 우리는 두 이름들의 지칭적 사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감지하지 못한다. 철수가 '리사 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한 반도체 기업의 경영자를 지칭한 것처럼, 영희도 '점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한 허구적 대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두 이름들의 후속하는 사용자들은 이전 이름 사용자가 지칭한 대상과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도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례들은 중요한 차이를 갖는다. 전자는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말한 상황인 반면, 후자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허구적 대상에 대해 말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름에 관한 밀주의에 따르면, 고유명(proper name)의 유일한 기능은 그것의 지시체(referent)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리사 수는 존재하므로 두 사람들은 이름 '리사 수'를

사용함으로써 존재하는 대상인 리사 수를 지칭할 수 있다. 반면 허구적 이름 '점순이'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들의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상적 직관을 곧바로 받아들인다면, 두 사람들이 사용한 허구적 이름 '점순이'는 한 허구적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대상도 지칭할 수 있다는 마이눙주의의 입장을 채택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지칭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이눙주의의 입장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일상인들의 반실재론적 직관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허구적 이름이 여전히 지칭에 성공한다고 주장하는 한 가지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허구적 이름이 허구적 대상이 아닌 다른 존재하는 대상을 지칭한다는 입장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점순이'라는 이름은 허구적 대상이 아니라, 예컨대 작가가 처음 그 허구적 이름을 생각해낸 시간 단편(time slice)이나 그 이름이 등장한 허구적 작품 등 허구적 대상과 무관한, 존재하는 대상을 지칭한다. 이 입장은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를 허구적 대상이 아니라, 다른 존재하는 대상으로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허구적 이름이 허구적 대상 이외에 다른 것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이러한 입장은 허구적 이름이 빈 이름임을 간신히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반례들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이 입장은 허구적 대상 및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관해 우리에게 별다른 통찰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임시방편으로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관한 문제를 막아둘 수는 없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만약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상적 직관을 중시하여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허구적 이름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칭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이름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반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이름 '점순이'는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빈 이름(empty name)이다. '점순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빈번히 사용하는 '산타클로스', '햄릿', '홈즈' 등의 허구적 이름들은 어떤 것도 지칭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반실재론의 주장은 허구적 이름의 일상적 사용 사례들과 충돌한다. 허구적 이름의 실제 사용 사례들에서 이름 사용자들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누군가가 앞선 사례의 영희와 철수에게 그들이 점순이를 가리키는 것에 실패하였다고 지적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누군가 철수와 영희에게 그들이 사실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하여 자신들은 한 허구적 대상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고 반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다. 이러한 반실재론적 믿음을 고려해본다면, 허구적 대상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는 그들의 반론은 과녁 없이 쏘아진 화살이 바로 그 과녁에 적중하였다는 주장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허구적 이름을 통해 허구적 대상을 가리킨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복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허구적 대상을 가리킨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 필자는 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인 허구적 대상은 존재하는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답변들을 제공하는 두 노선들이 있다.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의 노선 하에서는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의 노선 하에서는 허구적 대상이 (어떤 식으로든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의 노선을 채택하여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 하에서는 지시체의 결여에 따라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비추어보았을 때, 허구적 대상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허구적 대상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언뜻 보기에 허구를 오해하는 사람이나 제시할 법한 주장으로 보인다. 가령 허구 작품을 역사서로 착각해서 허구 내 묘사들을 전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예컨대 소설 『동백꽃』을 읽고 난 후 점순이가 존재한다고(또는 존재했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때 그 사람이 점순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의 본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실재론자들의 허구적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은 위와 같은 사

소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특히 필자가 옹호하는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로 제시되는 *허구적 캐릭터*는 일상적인 반실재론적 직관과 충돌하지 않다는 점에서 무해하다.

나아가 창조주의는 허구적 캐릭터를 동원하여 여러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그들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대한 반실재론자들이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을 제공할 수 있다. 본고가 허구적 이름의 지칭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주장들 역시 그러한 답변들에 속한다.

필자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 노선의 여러 입장들 중 창조주의를 채택하여 앞서 제기된 문제들에 답변하고자 한다. 가령 앞선 사례에서 허구적 이름인 '점순이'는, 일상적 이름 '리사 수'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지시체인 점순이를 지칭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 또 복수의 이름 사용자들은 이름 '점순이'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칭(공지칭)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가 존재함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허구적 이름의 지칭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어떤 조건 하에서 허구적 이름들이 공지칭에 성공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본고의 핵심 목표는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대한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reference-fixing)에 대한 설명 및 공지칭(co-reference)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고의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1장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관한 실재론 및 반실재론의 주요 주장들을 소개할 것이다. 나아가 두 노선들 중 반실재론이 허구적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의 참을 설명함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1장에서 살펴본 문제에 더하여, 종래의 반실재론이 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 현상을 해명하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반실재론 중에서도 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프렌드의 입장(Friend 2014)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러나 프렌드의 주장 역시 여러 반례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반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지칭의 해명과 관련하여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입장 역시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관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관한 여러 버전의 실재론들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토마슨(Thomasson 1999) 및 새먼(Salmon 1998)의 창조주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창조주의의 주요 주장들을 검토함으로써 그들이 허구적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방식 및 공지칭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 제시된 창조주의의 허구적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및 공지칭 조건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으며, 또 필자가 제시하는 설명이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고가 다루는 논의 주제에 익숙한 독자라면, 3장과 4장에서 본고를 통해 필자가 제안하는 핵심 주장들을 대부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필자의 주장에 제기될 수 있는 두 반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반례들에 대한 대응을 통해 본고가 지지하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이해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제1장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대한 실재론 및 반실재론

1장에서는 본고의 주요 주제인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관하여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의 여부에 있어서 서로 다른 답변을 제공하는 두 노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관해 살펴보기 이전에 허구적 대상 자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직접 지칭 이론 하에서 지칭에 관한 여러 현상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 즉 지시체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재론과 반실재론 중 어느 노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허구적 이름의 지칭과 관련된 답변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시체 존재 여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허구적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허용하는 입장은 허구적 이름이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성공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1] 반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은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 허구적 대상 외에 다른 것을 지시체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반실재론자는 허구적 이름이 아무것도 지칭하지 못하는 빈 이름(empty)이라고 주장해야만 한다. 이제 두 노선들 각각의 주요 주장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반실재론이 갖는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1.1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과 반실재론

허구적 대상은 존재하는가? 가령 작가인 코난 도일의 작품에 등장하는 셜록 홈즈(Sherlock Holmes)나 작가 김유정의 『동백꽃』에서 등장한 점순

1) 허구적 캐릭터의 존재를 승인하면서도, 허구적 이름을 빈 이름으로 남겨두는 입장이 가능하다. 가령 크립키의 입장(Kripke 2013)은 허구적 이름의 사용 방식에 따른 애매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동일한 이름 표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이름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가장 하에서 사용된 경우 지시체가 결여된 빈 이름이 사용된 것인 반면, 가장 없이 사용된 경우 존재하는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하는 이름이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크립키가 제안하는 허구적 이름의 애매성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는 새먼의 분석(Salmon 1998: 294)을 참고하라.

이와 같이 특정 허구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우리는 두 입장들을 구분할 수 있다. 허구적 대상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이하 '실재론')은 위 질문에 대해 허구적 대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이하 '반실재론')은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먼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허용하는 실재론 노선의 하위 입장들을 살펴보자. 각각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제시한다.

[마이눙주의]
허구적 대상은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Parsons 1980)

[가능주의]
허구적 대상은 있지만, 현실적 존재자가 아니다. (Plantinga 1974)

[창조주의]
허구적 대상은 존재하지만, 추상적 인공물이다. (Thomasson 1999)

세 입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허구적 대상을 마이눙적 대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들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은 비존재 대상(nonexistent object)이다. 허구적 대상은 존재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눙적 세계에 거주하는 대상들로 이해할 수 있다.

토마슨의 분석에 따르면, 마이눙주의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받아들인다.

(ⅰ) 모든 속성들의 결합(combination)과 연계된 적어도 하나의 대상이 있다.
(ⅱ) (허구적 대상들을 포함하여) 그러한 대상들 중 일부는 어떤 식으로든지 존재하지 않는다.
(ⅲ) 비록 그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들과 연계된 속성들을 (어떤 뜻에서) 갖는다. (Thomasson 1999: 14)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해보았을 때, 마이눙주의자들은 허구적 대상을 여러 속성들의 결합과 연계된 비존재 대상으로 간주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허구 내에 묘사된 특정한 속성들을 갖는 비존재 대상이다. 가령 셜록 홈즈의 경우, 그것은 사람이며, 사립 탐정이며, 탁월한 추리 능력을 갖추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허구적 대상을 가능 세계 존재자로 이해하는 가능주의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허구적 대상을 가능세계의 존재자로 이해하는 입장은 허구적 대상이 우리 세계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했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은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자(unactualized possibilia)이다. 가령 홈즈가 등장하는 허구 작품 『주홍색 연구(A Study in Scalet)』에는 홈즈에 대한 여러 묘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묘사들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가령 한 인간이 사립 탐정이면서, 탁월한 추리 능력을 갖는 등 작품 내 등장한 모든 묘사를 만족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도 있으며, 가능주의자들은 그러한 묘사들의 만족자가 홈즈라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가능주의 하에서 허구적 대상은 허구 내 묘사들을 모두 만족하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다른 가능 세계에만 거주하는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허구적 대상을 추상적 인공물로 이해하는 창조주의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자. 창조주의자들은 허구적 캐릭터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개입한다. 이때 허구적 캐릭터는 마이눙적 세계에, 또는 가능 세계에만 거주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허구적 캐릭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다만, 허구적 캐릭터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추상적 존재자이다. 나아가 창조주의자들은 허구적 대상이 지적 존재자의 의도적 활동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창조주의에 따르면, 마치 조각가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의 조각품이 만들어지듯, 허구적 캐릭터 역시 작가가 수행하는 의도적 활동들에 의해서 창조된 인공물이다.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의 노선에 속한 각 입장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일단 이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자. 우리는 3장에서 각 이론들의 주요 주장 및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가질 것이다. 실재론 노선에 속한 세 입장들은 상당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적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런데 허구적 대상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일상적 직관과 충돌한다. 가령 일반인들은 홈즈나 점순이와 같은 허구적 대상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허구적 실재론은 이러한 일상적 직관을 적절히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허구적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노선을 살펴보자. 본고에서는 반실재론 노선의 여러 가능한 입장들 중 우리의 직관을 잘 포착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장 이론(Pretense Theory)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장 이론의 지지자들(가령 Evans 1982, Walton 1990, Everett 2014 등)은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옹호한다.

가장 이론의 주요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가장 이론이 주장하는 가장 맥락(pretense context)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가장 맥락은 발생 규칙(principle of generation) 및 구체적인 이야기로 구성된다. 발생 규칙은 허구 작품을 바탕으로 그것에 관한 허구적 참들을 발생시키는 규칙들이다. 가령 코난 도일의 허구 작품 『주홍색 연구』와 관련해서, 우리는 상당히 복잡하고 상세한 발생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발생 규칙들의 세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2] 대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품에 적힌 대로 믿는 척하기*라는 발생 규칙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허구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 독자들은 그러한 발생 규칙을 적용하면서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발생 규칙을 적용하여 허구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독자들은 허구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및 여러 사건들을 믿는 척할 수 있다. 가령 독자들은 『주홍색 연구』를 읽으면서 작품에 적힌 대로 홈즈가 존재한다고 믿는 척하며, 또 홈즈가 사립 탐정이라고 믿는 척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허구 작품과 발생 규칙의 결합에 따라 발생하는 허구적 참들은 하나의 가장 맥락을 이룬다.

그렇다면 가장 이론 하에서 허구적 대상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허구적 대상은 특정한 가장 맥락 하에서 존재하는 대상이다. 가령 홈즈는 허구 작품 『주홍색 연구』와 관련된 특정 가장 맥락 하에서 존재하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홈즈가 존재하는 대상인가? 그렇지 않는다. 홈즈가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 가장 맥락 하에서의 허구적 참일 뿐, 단적인 참이 아니다.

---

2) 가장 맥락을 지배하는 규칙인 발생 규칙들은 다양하다. 발생 규칙들의 자세한 세목들은 Evans 1982, Everett 2014 등을 참조하라.

이는 우리가 홈즈를 존재한다고 가장하는 것일 뿐, 그러한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제 가장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에반스(Evans 1982: 360-361)가 제시하는 놀이 사례에 적용해보자. 가령 아버지가 딸과 놀아주던 중 방 안의 빈 구석을 가리키면서 "외계인이 나타났다!"고 발화하였다. 이 경우 아버지는 그러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한다. 이러한 발화를 듣게 된 딸은 예컨대 *들은 대로 믿는 척하기* 규칙에 따라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는 척한다. 그러한 가장적 믿음에 따라 그녀는 외계인을 피하기 위해서 쇼파 뒤로 숨거나 멀리 도망친다. 그녀는 해당 가장 맥락을 지배하는 발생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그 가장 맥락의 참가자가 되며, 허구 내 특정 발화나 문장들에 대해 발생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특정한 믿음을 믿는 척한다.

위의 놀이에서 드러나는 가장을 통해서 허구적 문장의 발화도 이해될 수 있다. 허구와 역사서를 비교해보자. 역사서의 저자는 역사서 내 문장들을 통해서 특정한 사실들을 주장하고, 각 문장들은 참 또는 거짓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허구 내 문장들은 어떠한가? 가령 허구 작품에 등장한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1) 홈즈는 베이커가 221번지 B호에 거주한다.
(2)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내밀었다.

우리는 허구 작품 내 문장들을 통해서 세계의 사실을 주장하는가? 그렇지 않다. 가장 이론에 따르면, 전형적인 허구 내 문장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상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세계에서 벌어진 사실들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1)과 (2)는 참과 관련 있는 문장이 아니다. 그러한 문장들은 허구를 지배하는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문장일 뿐이다.

이제 가장 이론 하에서 허구적 이야기 말하기(story-telling)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이론에 따르면, 작가는 허구 내 문장들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을 상상하라고 명령한다(prescribe). 반대로 독자는 허구를 지배하는 규칙들을 준수함으로써 허구 내 문장들을 적절히 감상한다. 따라서 허구를 감상하는 행위는 발생 규칙

을 기반으로 작가와 독자 사이에 발생하는 일종의 놀이(game)에 해당한다. 정리하자면 가장 이론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허구적 이야기 말하기가 허구 작품의 매개를 통해 작가와 독자 사이에 발생하는 규칙 따르기 놀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허구적 이야기-말하기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시한다.

1.2 반실재론의 문제: 허구적 대상에 관한 문장의 참 해명

이상에서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 및 반실재론의 주요 주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 노선에 속한 가장 이론은 허구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들, 특히 이야기 말하기의 본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 가장 이론은 전형적인 허구적 문장들에 대한 매력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문장들이 허구적 대상에 관한 문장들의 전부는 아니다. 허구적 대상에 대해 말하면서도, 혼합된 가장 맥락 하에 있는 문장 또는 어떤 가장 맥락에도 속해 있지 않은 문장들도 존재한다. 반실재론은 이러한 문장들의 이해에 있어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실재론은 그러한 유형의 문장들 중 일부 문장들이 참이라는 직관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실재론자가 설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문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장들의 참을 해명함에 있어서 반실재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자.

허구 간(cross-fictional) 비교 문장의 진리값

(3) 홈즈는 점순이보다 키가 크다.

(3)은 참인 문장으로 보인다. 가장 이론은 해당 문장이 참이라는 직관을 어떻게 해명하는가? 홈즈는 코난 도일의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허구적 인물이다. 반면 점순이는 김유정의 단편 소설에서 등장하는 허구적 인물이다. 가장 이론에 따르면, 각 허구적 인물들은 가장 맥락 하에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은 아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존재한다고 가

장되는 대상들이다. 이 문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둘이 서로 다른 가장 맥락들 하에서 존재하는 대상들이라는 점이다. 홈즈는 『주홍색 연구』와 관련된 가장 맥락 f_1 하에서 존재하는 반면, 점순이는 『동백꽃』과 관련된 가장 맥락 f_2 하에서 존재한다.

반실재론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판은 그것이 (3)의 참을 적절히 해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허구적 이름이 빈 이름임을 받아들이는 반실재론의 경우, (3)이 문자 그대로 참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3)이 참이라는 직관은 어떻게 해명되어야 하는가? (3)이 참이라는 직관에 대해 반실재론자가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응은 그것이 우리 세계의 참이 아니라, 허구적 참에 불과하다고 해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령 (3)이 허구적 참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가진 허구 작품을 발견할 수 없다. (3)이 허구적 참임을 지지하는 내용은 어느 작품에 묘사되어 있는가? 홈즈가 점순이보다 키가 크다는 묘사는 두 허구적 대상들이 등장하는 각각의 허구 작품들 중 어느 것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두 허구 작품 어디에서도 (3)의 허구적 참을 근거 짓는 묘사를 찾을 수 없으므로, (3)이 참이라는 직관을 허구적 참으로 파악하여 해명하려는 가장 이론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인스버리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을 유지하면서도 (3)이 참이라는 직관을 적절히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ainsbury 2009: 122-124). 우선 각각의 허구 작품 내에서 두 허구적 대상들이 갖는 키가 명시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3] 그 경우 우리는 두 허구적 대상들의 키를 비교하는 것으로 (3)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진리 조건에 의해서 문장 (3)의 단적인 참이 해명될 수 있다.

> 높이 정도 a, b에 대해서, a > b 일 때, 코난 도일의 이야기에 따르면 홈즈는 a 높이의 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김유정의 이야기에 따르면 점순이는 b 높이의 키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세인스버리는 한 허구 내 묘사에 이야기 연산자("이야기에 따르

3) 설령 허구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인스버리는 허구 내 이야기에서 그럴듯한 내용들 역시 허구적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설령 그러한 내용들이 명시되지 않다고 해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답변한다.

면")를 덧붙여 허구적 내용을 단적인 참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각 허구 내에서 묘사된(또는 묘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두 높이 정도들을 양화하여, 그 둘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해당 문장의 단적인 참을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의 참에 대한 세인스버리의 대응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해명은 다음의 문장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홈즈는 점순이와 다르다.

(4)는 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이론은 이 문장의 참을 적절히 해명할 수 있는가? 해당 문장은 두 대상과 관련된 어떤 속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 허구적 대상들이 단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가장 이론은 앞선 방식과 유사하게 이 문장의 참을 해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선 가장 이론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을 채택하므로, 앞선 해명 방식과 달리 두 허구적 대상들을 양화시킬 수 없다. 또 두 허구적 대상들을 모두 포괄하는 작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장의 허구적 참이 근거하는 특정 가장 맥락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이론은 문장 (4)의 참을 해명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유형의 문장들이 참이라는 직관을 해명하기 위해서, 가장 이론가들은 '확장된 가장 맥락(extended pretense context)'이라는 개념을 동원한다. 확장된 가장 맥락은 가장 맥락에 놓여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장치이다. 가장 이론가들은 가장 맥락에 추가적인 발생 규칙들을 도입함으로써 확장된 가장 맥락을 도입하며, 나아가 이 개념을 활용하여 허구 외적 문장의 참을 적절히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허구 외적 문장의 진리값

확장된 가장 맥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4] 다만 확장된 가장 맥락에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4) 확장된 가장 맥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세인스버리(Everett 2014: Ch.3, 특히 54-74)를 참조하라.

문장의 참은 적절히 해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홈즈는 허구적 캐릭터이다.
(6) 점순이는 작가인 김유정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5), (6)과 같이 허구 외적 관점에서 발화되는 것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문장들을 '허구 외적 문장'이라고 부르자. 물론 이러한 문장들은 허구 작품 내에 등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문장의 전형적인 발화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 문장들은 허구 안의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참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문장들과 비교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문장들을 발화하면서 가장 행위를 수행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한 문장들을 발화하면서 우리는 홈즈가 존재한다고 가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허구적 대상이 허구적-캐릭터임 속성을 만족한다고 가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문장들을 발화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이 허구적-캐릭터임이라는 속성을 실제로 만족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장들을 통해 우리는 세계의 사실에 대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5)와 (6)은 단적으로 참인 문장이다.

그런데 반실재론의 주장처럼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해당 문장은 참도 거짓도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다. 그들에 따르면 (5) 문장의 이름 '홈즈'는 빈 이름이므로, 가령 명제에 대한 러셀식의 이해에 따르면 해당 문장은 명제의 구성 요소를 결여함에 따라 명제를 표현하는 것에 실패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반실재론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반실재론자인 에버렛(Everett 2014)은 이러한 허구 외적 문장의 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단적인 참이라고 생각하는 직관이 잘못되었음을 고수한다. 그는 발화자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해당 문장들을 발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에버렛은 해당 문장이 단적인 참이라는 직관이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그것이 확장된 가장 맥락을 지배하는 규칙들에 따른 적절한 문장이라는 입장을 채택한다.

그런데 (5), (6) 문장들을 발화함에 있어서 우리는 특정 가장 맥락에 참가하고 있는가? 두 문장들을 발화함에 있어서 특수한 형태의 가장 행위를 수

행하고 있다는 에버렛의 주장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다 자연스러운 답변은 썰의 것이다. 그는 가장 행위는 의도적 행위로서 우리가 가장 행위를 의도하지 않는 한, 가장 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earle 1979: 65).

본고에서는 가장 행위의 본성(특히 행위자의 인지 여부가 가장 행위의 성립을 위한 필요조건인지의 여부)과 관련된 두 입장들 중 어느 쪽의 입장이 올바른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에버렛 주장의 성공은 에버렛의 행위자의 인지 없는 가장 행위라는 개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또 그러한 개념의 도입에 따라 추가되는 설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등에 달려있다. 다만 허구 외적 문장의 참에 대한 에버렛 식의 해명은 해당 문장 발화에 관한 일상적 직관의 상당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5] 달리 말하자면, 에버렛 식의 가장 이론은 허구적 대상에 관한 여러 문장들에 대한 우리의 직관(특히 허구 외적 문장들의 참)을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갖는다.

반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자는 허구적 이름을 포함하는 허구 외적 문장에 대해서 존재하는 허구적 대상에 호소함으로써 허구 외적 문장이 참을 표현한다는 직관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자는 허구적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의 진리 조건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허구적 대상에 호소하여 앞서 제시된 여러 유형의 문장들에 대한 진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으로 반실재론 노선 하에서 허구적 대상에 대한 문장의 참을 해명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쟁점은 실재론과 반실재론이 충돌하는 한 지점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과 반실재론은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하여 서로 충돌한다. 본고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허구적 이름의 지칭도 그러한 논쟁점에 해당한다. 다음 장에서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 현상이 어떻게 해명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입장의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5) 에버렛과 달리 허구 외적 문장의 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위해서, 허구 내 문장들에 대한 가장 이론의 입장을 충실히 받아들이더라도, 그래서 특정 문장들(허구 내 문장)에서 허구적 이름이 지칭에 실패함을 받아들이더라도, 허구 외부 진술의 해명에 있어서는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보다 온건한 입장들도 존재한다. 가령 Kripke 2013, Recanati 2018.

제2장 반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대한 해명

1장에서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 및 반실재론에 관해 소개하고, 그 두 노선들이 충돌하고 있는 한 논점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본고의 핵심 주제인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반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 현상에 관한 한 가지 유력한 해명을 살펴보고, 그러한 해명이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 현상에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 반실재론이 어떠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2.1). 다음으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대한 반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칭과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해명을 제공하고 있는 프렌드(Friend 2014)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2.2). 그런데 프렌드의 해명은 기존 허구적 대상의 편입과 관련된 문학적 관행의 여러 사례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우선 편입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2.3), 다음으로 프렌드를 비롯한 기존의 입장들이 편입 사례에서 드러나는 결론들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2.4). 정리하자면, 이번 장의 내용을 통해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대한 반실재론을 채택하는 입장이 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을 해명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2.1 지시체 결여에 따른 허구적 이름의 지칭 실패

지시체가 존재하는 일상적 이름의 경우, 지칭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이름 사용자는 해당 이름을 사용하여 존재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있다. 가령 이름 '빌 게이츠'는 존재하는 대상 빌 게이츠를 지칭하므로, 이름 사용자는 해당 이름 표현을 지칭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존재하는 대상 빌 게이츠를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에 따르면 허구적 이름의 경우 지칭의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칭에 성공할 수 없다. 지칭은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

이므로 그것의 통상적 지시체로 여겨지는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채택한다면, 허구적 이름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칭에 실패한다.

그러나 허구적 이름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칭에 실패한다는 주장은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충돌하는 결론들을 산출한다.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에 따르면 홈즈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구적 이름 '홈즈'는 홈즈를 지칭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름 '홈즈'의 사용자들은 해당 이름을 사용하면서 홈즈를 가리키는 것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누군가 이름 '홈즈'를 사용하여 "홈즈는 사설 탐정이다."라고 발화한 경우, 이름 사용자는 홈즈에 대해 그것이 사립 탐정이라고 말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허구적 이름이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실패한다는 주장은 또 다른 문제를 갖는다. 복수의 사람들이 한 허구적 대상에 대해 말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한 사람은 이름 '홈즈'를 사용하여 "홈즈는 사설 탐정이다."라고 발화하고, 다른 사람도 이름 '홈즈'를 사용하여 "홈즈는 탁월한 추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화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두 사람들은 동일한 허구적 대상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다른 사람이 이름 '왓슨'을 사용하여 "왓슨은 퇴역 군의관이다."라고 발화한다면, 이전과 다른 허구적 대상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은 위 사례들에 드러나는 일상적 직관들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허구적 이름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칭에 실패한 것이므로, 허구적 이름의 사용을 통해 허구적 대상을 지칭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한낱 착각에 불과하다. 나아가 지칭적으로 사용된 복수의 허구적 이름들 역시 동일한 허구적 대상 또는 서로 다른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지 못한다.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받아들인다면, 복수의 이름들이 동일한 허구적 대상을, 또는 서로 다른 허구적 대상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허구적 대상 및 허구적 이름과 관련된 일상적 직관들을 정리해보자.

(a) 허구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b) 허구적 이름 사용자는 허구적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c) 허구적 이름들은 그것이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개별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제시된 일상적 직관들에 대해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 반실재론의 입장은 (a)의 직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b)와 (c)의 직관을 거부한다.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허구적 이름은 원리적으로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여부에 의존하여 개별화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반실재론의 입장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ⅰ)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 허구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ⅱ) [허구적 이름의 지칭 실패] 허구적 이름은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실패한다.
(ⅲ) [허구적 이름의 대상 의존적 개별화 실패] 허구적 이름은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개별화될 수 없다.

(ⅰ)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ⅱ) 역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칭에 관한 마이눙주의의 주장을 채택한다면, (ⅰ)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ⅱ)가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 덧붙여 반실재론 하에서는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로서 허구적 대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하는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허구적 이름이 새롭게 설정된 지시체에 대한 지칭에 성공한다는 주장을 전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의 주장을 택하는 반실재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허구적 대상이 아닌 어떤 대상을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눙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반실재론자들은 허구적 이름이 허구적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는 (ⅱ)를 수용한다.[6]

반면 (ⅰ)을 수용할 경우 (ⅲ)이 따라 나온다.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

6) 이후에 살펴볼 반실재론 노선에 속한 프렌드(Friend 2014) 역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제를 받아들인다.

는다는 입장을 채택할 경우, 허구적 대상의 객관적인 동일성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동일성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반실재론 하에서는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기준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 기준에 호소하여 허구적 이름들의 개별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반실재론은 그것이 거부하는 일상적 직관 (b)와 (c)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다. 실재론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b)에서 제시된 허구적 이름의 지칭 성공 직관 및 (c)에서 제시된 공지칭 성공 직관을 적절히 해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실재론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필자는 반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 현상에 관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해명을 제시하는 프렌드(Friend 2014)의 정보 중심적 접근법(info-centric approach)을 살펴볼 것이다. 그녀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이름이 어떤 것도 지칭하지 않는 빈 이름이라는 점을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제시한다. 우선 정보 중심적 접근법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러한 답변이 갖는 문제들을 살펴보자.

2.2 프렌드의 정보 중심적 접근법

프렌드(Friend 2014)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을 채택하고, 나아가 허구적 이름이 지시체를 결여한 빈 이름이라 주장한다. 프렌드에 따르면 허구적 이름은 어떤 것도 지칭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페리(Perry 2001)가 제안하는 관념 네트워크(notion network) 이론 및 에반스(Evans 1982)가 제안하는 지시체-결정 모델의 주요 주장들을 차용해서 허구적 이름들의 유사-공지칭 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허구적 이름들의 지칭적 사용을 통한 공지칭 현상을 해명한다.

프렌드는 허구적 이름은 지시체가 결여된 빈 이름이므로, 이름 사용자가 그러한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대상을 가리킬 수는 없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름에 결부된 정보들의 지배적 원천에 호소함으로써, 이름 사용자가 허구적 이름을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복수의 이름 사용자들이 동일한 허구적 대상을 가리키는 현상 및 서로 다른 허구적 대상을 가리키는 현상 역시 적절히 해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에 대한 프렌드의 구체적인 해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그녀가 한 이름의 지시체-결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녀가 채택하고 있는 주요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ⅰ) 이름을 지칭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지칭할 때, 이름 사용자는 심적 파일(mental file)을 활용한다.
(ⅱ) 한 이름 표현의 지시체는 그 이름 표현을 사용할 때 이름 사용자가 활용하고 있는 심적 파일이 대한 대상이다.
(ⅲ) 한 심적 파일이 대한 대상은 그 심적 파일 내에 포함된 정보들의 지배적인 원천이다.

지칭에 관한 프렌드의 주요 주장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1)에서 등장하는 심적 파일(mental file)이 무엇인가? 심적 파일은 한 인식 주체가 갖는 관념(notion)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개념이다. 관념은 우리 마음 속의 인지적 개별자(cognitive particular)로서 한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 생각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가령 누군가가 빌 게이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빌 게이츠에 대한 관념을 활용하여 특정 심적 표상물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를 심적 파일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하자면, 그 인식 주체는 자신이 보유한 빌 게이츠에 대한 심적 파일을 인지적으로 활용하는(deploy)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2)와 (3)은 지칭적으로 사용된 한 이름의 지시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답하고 있다. 우선 (2)를 살펴보자. (2)에 따르면, 지칭적으로 사용된 한 이름의 지시체는 이름 사용자가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활용하는 심적 파일이 대한 대상이다. 그렇다면 한 심적 파일이 대한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는 (3)에서 답변되고 있다. 프렌드는 한 파일이 대한 대상은 그 심적 파일 내 정보들의 지배적 원천(dominant source)임을 주장한다. 가령 한 사람이 어떤 심적 파일 내부에 "그것은 중년 남성이다.", "그것은 사업가이다." 등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그 심적 파일이 대한 대상이 어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들 각각의 궁극적 원천이 무엇인지를 추적하면 된다. 가령 위 사례에서 그 사람이 가진 심적 파일 내 정보들 각각의 궁극적 원천을 추적해보자. 제시된 심적 파일 내 정보들은 빌 게이츠로부터 지배적으로 얻어진 것이므로, 그 심적 파일은 빌 게이츠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한 이름의 지시체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프렌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한 이름 사용자가 특정 이름 표현을 지칭적으로 사용할 때 그 사람은 특정 심적 파일을 활용하는데, 이때 그 심적 파일 내부에 포함된 정보들이 무엇으로부터 지배적으로 얻어졌는지에 따라 그 이름의 지시체가 결정된다. 간단히 말해서 이름 사용자가 활용하는 심적 파일 내 정보들의 지배적 원천이 지칭적으로 사용된 이름의 지시체이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한 지시체-결정 방식을 허구적 이름에 곧바로 적용함으로써 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이 설명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럴 수 없다. 유념해야 할 것은 프렌드 역시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을 옹호하고 있으므로,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심적 파일 내 포함된 정보들의 지배적 원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자면, 허구적 이름을 사용할 때 활용되는 파일은 그것이 대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빈 심적 파일(empty mental file)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프렌드의 지시체-결정 방식이 허구적 이름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지칭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칭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유사-지칭'이라고 부르자. 또 지칭적으로 사용된 복수의 이름들이 존재하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칭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유사-공지칭'이라고 부르자. 그렇다면 반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사용을 통한 유사-지칭 및 유사-공지칭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녀는 작가에 의해서 도입된 정보들의 전달에 호소함으로써 허구적 이름들의 유사-지칭 및 유사-공지칭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가에 의해서 자유롭게 창조된 빈 관념(freely-created empty notion)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작가는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빈 심적 파일을 열 수 있다. 이때 작가가 갖는 관념을 '자유롭게 창조된 빈 관념'이라고 부르

자. 가령 코난 도일이 홈즈에 대해 처음 생각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 경우 코난 도일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며, 이것을 코난 도일이 빈 심적 파일을 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덧붙여 작가는 허구적 대상에 관해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그 허구적 대상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자신이 만든 빈 심적 파일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가령 코난 도일은 홈즈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그것은 '홈즈'라고 불린다.", "그것은 탁월한 추리력을 가진 사립 탐정이다.", "그것은 베이커가 221번지 B호 하숙집에 산다." 등의 정보들을 자신이 만든 빈 심적 파일 안으로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이 정보들은 코난 도일이 임의로 발생시킨 것일 뿐 존재하는 대상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니므로[7], 해당 심적 파일은 그것이 대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빈 심적 파일이다.

이제 허구적 이름 사용자들이 이름 '홈즈'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허구적 대상인 홈즈를 가리키는 것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가령 코난 도일의 허구 작품을 감상한 정우가 '홈즈'라는 이름을 전달받으면서, 동시에 그에 관한 여러 묘사들을 함께 제공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정우는 홈즈에 대한 심적 파일을 열 것이고, 그 파일 내에 작가인 코난 도일이 홈즈에 관해 발생시킨 여러 정보들을 포함시킬 것이다. 이때 그가 이름 '홈즈'를 사용하면서 코난 도일의 홈즈에 대한 유사-지칭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름 '홈즈'를 지칭적으로 사용하면서 활용한 심적 파일 내 정보들이 작가인 코난 도일의 홈즈에 대한 빈 심적 파일로부터 지배적으로 얻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프렌드가 제시하는 유사-지칭을 위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사-지칭을 위한 프렌드의 조건]

지칭적으로 사용된 이름이 허구적 대상 *o*에 대한[8] 유사-지칭에 성

---

7) 비순수 허구적 이름의 경우(가령 『삼국지연의』의 '유비' 등) 이러한 정보들의 지배적인 원천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고가 다루고 있는 순수 허구적 이름과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다.

8) 물론 프렌드의 입장에서 허구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건에 있어서 허구적 대상이 어떤 실질적인 변화도 발생시키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오해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허구적 대상 *o*에 대한"이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유사-지칭 조건을 보다 직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덧붙여 대상 o의 양 옆에 별표 표시(*)는 그것이 한낱 가장 맥락 하에서 존재하는

공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허구적 이름 사용자가 이름 'N'을 사용할 때 활용하는 심적 파일 내에 포함된 정보들이 작가가 갖는 허구적 대상 *o*에 대한 자유롭게 창조된 빈 심적 파일 m으로부터 지배적으로[9] 얻어진다.

정리하자면, 이름 사용자가 활용하는 심적 파일 내 정보들의 취득 경로를 추적하였을 때 그것들이 작가의 특정 허구적 대상에 대한 빈 심적 파일로부터 지배적으로 얻어진 경우에만 이름 사용자는 작가의 특정 허구적 대상에 대한 유사-지칭에 성공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건을 발전시켜 허구적 이름들의 유사-공지칭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유사-공지칭을 위한 프렌드의 조건]
지칭적으로 사용된 복수의 허구적 이름들이 유사-공지칭에 성공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허구적 이름을 지칭적으로 사용할 때 이름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각각의 심적 파일들 내에 포함된 정보들이 작가가 자유롭게 창조해낸 허구적 대상에 대한 빈 심적 파일로부터 지배적으로 얻어진다.

이제 프렌드가 제안하는 정보 중심적 접근법이 허구적 이름의 유사-공지칭을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복수의 허구적 이름들이 유사-공지칭에 성공하는지의 여부는 이름 사용자들이 허구적 이름을 사용할 때 활용하는 심적 파일 내 정보들이 특정 작가가 발생시킨 단일한 빈 심적 파일로부터 지배적으로 얻어졌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간단히 말해서 복수의 이름 사용자들이 허구적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에 결부시킨 정보들의 궁극적이고 지배적인 원천이 동일하다면, 유사-공지칭이 성립한다.

대상일 뿐, 진정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님을 나타낸다.

9) 프렌드는 정보의 원천이 단순히 심적 파일 내 포함된 정보들 대다수의 원천이 아니라, 정보들마다 나름의 가중치를 갖는다는 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심적 파일 내 정보들의 지배적인 원천은 단순히 심적 파일 내에 속한 각각의 정보들과 원천 관계에 의해서 가장 빈번하게 연결된 심적 파일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프렌드가 말하는 지배적인 원천은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Friend 2014: 329).

정리하자면, 프렌드는 작가로부터 발생한 정보들의 흐름에 호소하여 허구적 이름의 유사-지칭 및 유사-공지칭을 설명한다. 한 독자가 허구적 이름을 사용할 때 활용하는 심적 파일 내 정보들의 원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심적 파일에 포함된 정보들이 한 작가가 발생시킨 단일한 빈 심적 파일로부터 지배적으로 얻어진 경우, 그 독자는 작가와 유사-공지칭에 성공한다. 이를 통해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이름 사용자들이 사용한 허구적 이름이 특정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유사-지칭), 나아가 복수의 이름 사용자들이 동일한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유사-공지칭)를 설명할 수 있다.

2.3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 사이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프렌드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프렌드는 각 이름 사용자들이 발생시키는 심적 파일 내 정보들이 흘러나오게 된 빈 심적 파일의 동일성에 호소하여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을 해명하고 있다.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심적 파일 내 정보들은 주로 그 허구적 대상이 등장하는 허구 내 묘사들로 구성될 것이므로[10], 프렌드의 유사-공지칭 조건은 한 허구적 대상에 관한 허구 내 묘사들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심적 파일 내 정보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특히 허구 내 묘사들에 의존하여 허구적 이름의 유사-공지칭을 설명하려는 프렌드의 입장은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들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연결은 프렌드의 주장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허구적 대상에 대해 어떤 형이상학적 입장을 취하든지와 상관 없이 기존의 여러 입장들은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들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전제한다. 실재론의 노선에 속하는 잘타(Zalta 1983)와 파우츠(Pautz 2008), 또 반실재론의 노선에 속하는 에버렛(Everett 2000, 2013) 등의 주장에서 허구적

10) 프렌드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빈 심적 파일 내 정보들로 허구 외적 정보들 역시 허용한다. (Friend 2014: 329 fn.44) 그러나 그러한 정보들의 도입은 그녀가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허구 외적 정보들(가령 그것은 허구적 캐릭터이다 등)은 허구적 대상에 심적 파일들이 공유하는 정보들이며, 이에 따라 심적 파일들의 개별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과 허구 내 묘사들 사이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재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허구적 이름의 실제 사용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둘 사이에는 기존 입장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슨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기존 허구적 대상의 '편입(import)'이라는 문학적 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절에서는 편입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사례들의 결론으로서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의 묘사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강한 연관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사설 탐정이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을 탐험하는 모험가인 홈즈를 상상할 수 있는가? 또는 성탄절 전날 밤에 착한 아이든지 나쁜 아이든지 간에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훔치는 산타클로스를 상상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일반인들은 그러한 경우들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답변할 것이다. 홈즈에 대해서 잘 아는 독자들은 모험가인 홈즈는 코난 도일의 홈즈일 수 없다고 답변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전날 밤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훔치는 도둑은 산타클로스일 수 없다고 답변할 것이다.

각 허구적 대상들에 관하여 그것에 흔히 귀속되는 속성이 누락되는 상황 또는 그것에 흔히 귀속되는 속성과 반대되는 속성이 귀속되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은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들이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인들은 한 허구적 대상에 흔히 귀속되는 여러 속성들이 상당히 수정되는, 나아가 그것과 충돌하는 속성이 귀속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거부감을 바탕으로 위 사례들에서 누락되거나 수정된 속성들이 한 허구적 대상의 중요한 속성 또는 본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로 허구 내에 묘사된 (일부) 속성들이 각 허구적 대상들의 본질인가? 예컨대 홈즈는 모험가일 수 없는가? 산타클로스는 성탄절 전날 밤 아이들이 애착을 갖는 물건들을 빼앗는 도둑일 수 없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일상적 보고에서 드러나는 상상의 부자연스러움은 상상의 불가능함과 구분되어야 한다. 탐험가 홈즈를 상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성탄절 전날 밤 아이들로부터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빼앗는 산타클로스를 상상하는 것은 더 부자연

스러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덕한 산타클로스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편입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한 허구적 대상에 일반적으로 귀속된 속성들이 철회·수정된다고 하더라도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허구적 대상의 편입에 관한 문학적 관행들의 여러 사례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지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기존 허구적 대상의 편입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가? 기존 허구적 대상을 새로운 작품 내로 편입시키는 문학적 활동들을 검토해 본다면,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점검할 수 있다. 마치 어떤 속성이 한 대상의 본질인지 여부가 그 대상이 존재하는 가능세계들을 검토함으로써 판단될 수 있듯이, 허구적 대상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한 어느 한 묘사가 그 대상의 본질인지의 여부는 그 허구적 대상에 대한 새로운 묘사들이 제시되는 새로운 허구 작품을 검토함으로써 판단될 수 있다.

우리는 기존의 허구적 대상을 새로운 허구 작품으로 편입시키는 독특한 문학적 관행을 가지고 있다. 편입은 특수한 유형의 허구 작품들에서 자주 발생한다. 가령 원작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리퀄(prequel), 원작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시퀄(sequel), 그리고 원작의 설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원작을 계승하는 스핀-오프(spin-off) 등에서는 기존 허구적 대상의 새로운 허구 작품으로의 편입이 발생한다. 이러한 유형의 허구 작품에서는 기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새로운 묘사들이 등장한다.

우리는 편입과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새로운 허구 작품들에서 기존과 다르게 묘사된 허구적 대상이 기존의 허구적 대상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한 허구적 대상이 원작에서 드러난 허구 내 묘사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원작에서 등장한 허구 내 묘사들이 상당 부분 수정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허구적 대상이라는 직관이 고수된다면, 허구 내 묘사들은 허구적 대상과 긴밀한 연결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허구 내 묘사들의 수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허구적 대상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허구적 대상이라는 직관이 옹호된다면, 원작의 묘사들은 허구적 대상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나아가 그러한 묘사들이 허구적 대상의 본질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다음의 두 가상적 사례들을 생각해보자.

사례1 누군가 코난 도일의 홈즈에 대한 프리퀄(prequel) 소설 『홈즈의 어린 시절』을 집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프리퀄의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코난 도일이 만든 홈즈의 유년 시절에 관한 작품을 집필하고자 의도하였다. 새로운 작품에서 홈즈에 관한 묘사들은 코난 도일이 홈즈에 대해 귀속하였던 많은 묘사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성인도, 사설 탐정도 아니며, 파이프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다. 그는 범죄 사건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추론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새로운 작품에서 홈즈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평범한 어린아이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강도가 들었고, 불운하게도 형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잃게 되었다. 이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그는 각종 범죄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

새로운 작품에 등장한 주인공은 코난 도일의 홈즈에 관한 묘사들과 상당히 다르다. '홈즈'라고 불린다는 점, 남성이라는 점, 형이 있다는 점, 범죄 사건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원작의 홈즈에 대한 묘사와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새로운 작품의 주인공은 사립 탐정도 아니고, 탁월한 추리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어린아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새로운 작품에 등장한 어린이 홈즈를 코난 도일의 홈즈와 다른 허구적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례2 누군가 코난 도일의 홈즈에 대한 스핀-오프 소설 『외계인 홈즈』를 작성한다고 가정해보자. 스핀-오프 소설의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코난 도일의 홈즈를 차용하고자 의도하지만, 그에 대해 원작의 묘사와 상당히 다른 새로운 묘사들을 도입한다. 새로운 작품에 따르면, 홈즈는 사실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었다. 그는 지구 침공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구에 파견된 선발 대원으로서, 인간들의 생활을 탐구하기 위해서 인간

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사설 탐정 행세를 한 것이었다. 나아가 그가 범인 발견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이유는 그가 탁월한 추론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외계인이 가진 특수한 지각 능력 덕분이었다.

만약 홈즈가 화성에서 날아온 외계인이었다는 점이 별다른 추가적 묘사 없이 주어졌다면, 그러한 변화를 접한 독자들은 그것이 코난 도일의 홈즈와 이름만 동일할 뿐, 서로 다른 허구적 대상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례2에서처럼 새로운 소설에서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킬 심리적 저항을 약화시키는 묘사들이 적절히 제시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새로운 소설의 홈즈가 코난 도일의 홈즈와 다른 허구적 대상이라는 판단은 철회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작품에 등장한 허구적 대상이 기존과 다른 대상이라는 인지적 저항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우선 사례1를 살펴보자. 원작에서 허구적 대상에게 귀속되었으나 새로운 작품에서 수정되거나 부정될 속성을 '타겟 속성'이라고 부르자. 가령 사례1에서 타겟 속성들은 성인임, 사립-탐정임, 파이프-담배를-피움, 뛰어난-추리력을-가짐 등이다. 그런데 단순히 타겟 속성들을 누락시키는 것만으로는 기존과 다른 대상이라는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이 기존과 다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속성들의 추가적인 귀속이나 사건들의 추가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작품에 등장하는 허구적 대상이 기존 허구적 대상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묘사들을 '연결 묘사'라고 부르자. 가령 사례1에서 새로운 작품에 등장하는 몇 가지 묘사들, 가령 "홈즈는 어린이이다.", "홈즈는 범죄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등의 묘사들은 그러한 연결 묘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결 묘사들이 기존 허구적 대상과의 동일성 판단을 유지시킬 정도로 충분히 주어지는 경우, 우리는 기존의 허구적 대상인 홈즈를 새로운 작품에 편입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2에서는 기존 허구적 대상에 귀속된 속성들의 부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속성들에 의한 대체가 발생한다. 가령 사례2에서 타겟 속성들은 인간임, 탁월한-추론-능력을-가짐 등이다. 이러한 타겟 속성들을 대체하여 새로운 작품에서 새롭게 귀속될 속성을 '대체 속성'이라고 부르자. 가령 사례2

에서 등장한 화성에서-온-외계인임, 탁월한-지각-능력을-가짐 등이 대체 속성에 해당한다. 이때 단순히 타겟 속성을 누락시키고 대체 속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편입에 실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홈즈를 단순히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라고만 묘사한다면, 새로운 작품에 등장한 홈즈가 코난 도일의 홈즈와 다른 허구적 대상이라는 판단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해 타겟 속성과 대체 속성 사이의 간극을 메꿔 줄 연결 묘사들이 필요하다. 가령 새로운 허구 내에서 "홈즈는 인간으로 변장하고 인간 행세를 한 것에 불과했다.", "화성 외계인들은 뛰어난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등의 묘사들은 타겟 속성과 대체 속성 사이의 간극을 매꿔 줄 연결 묘사에 해당한다. 이처럼 새로운 허구 내에서 등장한 허구적 대상과 기존 허구적 대상 사이의 동일성 판단을 지지하는 연결 묘사들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 기존 허구적 대상은 새로운 허구 내로 성공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존 허구적 대상을 새로운 작품으로 편입시키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성공적인 편입을 위한 한 가지 방식은 새로운 작품의 작가가 원작의 묘사와 새로운 묘사들 사이의 간극을 보충할 추가적인 묘사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작가가 그러한 연결 묘사들의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한 작품의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허구적 대상에 대해 자유롭게 묘사할 수 있으므로, 기존 허구적 대상를 자신의 작품에 편입하고자 하는 작가 역시 그 연결 묘사들의 내용을 제시함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사례들에서는 원작과 다른 허구 내 묘사들이 대규모로 등장한다. 그런데 허구 내 묘사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작품에서 등장한 허구적 대상이 기존과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가가 기존 허구적 대상을 새로운 작품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 새로운 작품에서 등장하는 허구적 대상이 기존 허구적 대상과 다르다는 인지적인 저항을 억제시키는 연결 묘사들이 충분히 제시되는 한[11], 새로운 묘사들이 기존의 묘사와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11) 반실재론자인 에버렛이 제안하는 편입에 관한 조건은 이러한 아이디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공적인 편입에 있어서 새로운 허구 작품의 가장 맥락을 지배하는 발생 원리들(principles of generation)이 (ⅰ) 새로운 작품 감상에 있어서 기존 허구적 대상에 대한 표상을 떠올리게 하고 (ⅱ) 그렇게 떠올린 표상이 새로운 허구적 대상에 관한 것으로 *간주되는(count)* 경우 편입에 성

고 하더라도 편입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편입의 조건

이상의 두 사례들을 통해서 허구적 대상의 한 가지 편입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적절히 발전시키면, 기존 허구적 대상의 편입에 관한 조건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허구적 대상의 편입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살펴보자.

우선 편입 조건과 관련하여 에이미 토마슨(Thomasson 1999)의 주장을 살펴보자. 그녀는 허구적 대상의 허구 간 동일성(cross-fictional identity)의 필요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 [허구 간 동일성을 위한 필요조건]
> 허구 L의 작가는 반드시 허구 K의 x에 대해 상당히 친숙해야 (competently acquainted with)하고[12], x를 허구 L에 y로서 편입 (import)하고자 의도해야 한다. (Thomasson 1999: 67)

이러한 필요조건의 동기는 무엇인가? 마이눙주의나 잘타(Zalta 1983)의 주장에 반하여, 한 허구적 대상이 다른 허구 내에서 다른 속성들을 귀속받더라도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이 변화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 가령 코난 도일의 홈즈 시리즈에 속하는 『주홍색 연구』와 『네 사람의 서명』에서 홈즈에 관한 묘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가령 두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홈즈들은 작중 행적들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들에 등장하는 허구적 대상 홈즈는 동일하다.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녀는 기존의 입장들과 달리 허구 내 묘사들의 일치와 독립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그녀는 작품 내 허구적 대상에 귀속된 속성들과 독립적으로 작가의 편입에 관한 의도를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공한다고 주장한다. (Everett 2014: 97, 강조는 필자의 것) 물론 이러한 조건을 보다 구체화한다면, 에버렛은 필자의 제안과 차이를 보일 것이지만, 일단 위에서 인용된 편입에 관한 조건에 있어서는 에버렛의 제안과 유사하다.

12) 이때 기존 허구적 대상에 "상당히 친숙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토마슨은 기존 허구적 대상을 편입하고자 하는 작가는 허구적 대상 x의 이름의 유능한 사용자일 정도로 친숙해야 한다고 부연한다.

나아가 토마슨의 제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녀가 해당 조건을 충분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그녀는 해당 조건을 필요조건으로만 제한하는가? 토마슨은 단순한 편입 의도의 보유만으로는 의도치 않은 지칭 전환(unintentional reference-shift) 사례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령 새로운 작품의 작가가 기존 허구적 이름의 유능한 사용자이자, 동시에 기존 허구적 대상을 편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런데 적절한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설령 작가가 편입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허구적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된(devised)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가령 새로운 허구 작품에 작가가 코난 도일의 홈즈에 대한 편입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자들이 자신의 의도를 추측할만한 별다른 힌트도 남겨두지 않은 채 단순히 홈즈를 강아지라고만 묘사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새로운 작품의 홈즈는 코난 도일의 홈즈와 동일하지 않은 허구적 대상으로 보인다.[13)]

그런데 앞서 살펴본 두 편입 성공 사례들에서 제시된 주장들을 적절히 발전시킨다면, 토마슨이 우려한 문제를 회피하는 편입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허구적 대상을 새로운 허구 작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기존 허구적 대상의 편입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한 작가가 기존 허구적 대상을 새로운 허구 작품에 편입하는 것에 성공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ⅰ) 그 작가는 기존의 허구적 대상의 이름에 대한 능숙한 사용자이고,
(ⅱ) 새로운 작품에 기존 허구적 대상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보유

13) 토마슨의 의도치 않은 지칭 전환은 허구적 대상의 창조에 관한 창조주의의 주요 주장과 충돌한다. 토마슨이 만약 의도치 않은 지칭 전환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허구적 대상을 창조하려는 의도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3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창조주의의 핵심 주장은 허구적 대상의 존재가 작가가 가진 창조 의도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만약 작가에 의한 의도치 않은 허구적 대상의 창조를 받아들인다면, 허구적 캐릭터가 작가의 창조 의도에 의해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창조의 조건과 충돌한다. 정리하자면, 토마슨은 의도치 않은 지칭 전환을 허용함에 따라 의도치 않은 허구적 캐릭터의 생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며, 창조주의를 채택하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해명을 제시해야 한다.

하고 있으며,

(iii)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기존 허구적 대상을 편입하려는 의도를 실현하고 있다.

추가된 조건 (iii)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왜 작가가 보유한 편입 의도가 적절히 실현되어야만 기존 허구적 대상에 대한 편입에 성공하는가? 이는 이름 사용자가 편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의도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창조주의에 따르면 허구적 캐릭터는 작가가 독자들에게 특정 내용을 상상하도록 요구할 때 활용하는 장치이자 소품이다. 작가는 이러한 허구적 캐릭터를 허구 내에 등장시켜서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상상하기를 바란다. 반면 독자들은 작가가 허구적 캐릭터에 관해 제시한 허구 내 묘사들을 통해서 허구적 내용들을 상상한다.[14] 이때 기존 허구적 대상을 편입시키고자 하는 작가는 한 허구적 대상을 허구 내에 등장시킴으로써 독자들이 그것을 통해 기존 허구적 대상을 상상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의도의 보유했다고 해서 의도의 실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작가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독자들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독자들은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추론할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적절히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작가가 자신이 기존 허구적 대상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해야만, 독자들이 해당 작품의 감상에 있어서 작가가 바라는 대로 특정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의 의도를 적절히 전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들을 허구 내에 배치하는 것이다. 가령 앞서 살펴보았던 연결 묘사들의 제시는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조건 (iii)은 성공적인 편입을 위해서 작가의 편입에 관한 의도가 독자들에게 적절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다.

---

14) 이와 관련하여 새먼(Salmon 1998)의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허구적 대상에 대한 새먼의 독특한 이해는 이후 3장에서 보다 자세히 드러날 것이다.

추가된 조건 (iii)은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어떤 실질적인 주장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작가가 단순히 그러한 의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ii))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도가 적절한 방식으로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아주 사소한 요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새롭게 제시된 조건 (iii)의 내용이 아니라, 조건 (iii)이 기존의 여러 입장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쉽게 만족된다는 점이다.

편입 의도의 허구 내 실현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편입 의도의 허구 내 실현 조건을 가장 이상적으로 만족하는 방법은 원작에 제시된 모든 속성들을 그 어떤 변화도 없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만약 원작에 제시된 모든 속성들이 빠짐없이 새로운 작품에서 제시되고 있다면, 그러한 의도가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거의 모든 문학적 관행에서(심지어 기존의 작가가 후속하는 단편 소설을 제시하는 상황에서조차) 이러한 방식의 편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구 내 묘사된 모든 속성들의 반복은 이전과 동일한 인쇄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가까운 것이므로, 편입 의도가 그렇게 엄격한 방식으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속성들 변화에도 기존 허구적 대상의 편입에 성공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편입 조건은 지나치게 엄격한 편입 방식을 적절히 약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여러 입장들과 필자의 주장이 갖는 차이는 조건 (iii)을 만족시키는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변화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존 허구적 대상에게 귀속된 속성들을 대부분을 유지하지 않고서도(사례1), 그리고 기존 허구적 대상에게 귀속된 속성들 중 중요한 속성들이 유지하지 않고서도(사례1, 2) 조건 (iii)이 만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속성의 중첩과 독립적으로, 새로운 허구 내에 충분한 연결 묘사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편입 의도가 허구 내에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속성의 중첩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식의 편입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허구 작품에서 등장한 허구적 대상에 관한 새로운 묘사들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일한 허구적 대상인 것처럼 보인다는 직관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기존 허구적 대상의 편입에 관한 조건을 탐구하는 것은 이것으로 만족하자. 반복하여 강조하면 필자는 작가의 의도가 실현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입장들보다 허구적 대상에 대한 더 자유로운 변형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들을 차이점을 갖는다. 이제 이러한 주장이 기존에 제시되었던 허구적 이름의 이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비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자.

2.4 프렌드의 유사-공지칭 조건과 그에 대한 비판

이제 프렌드의 입장에 대한 비판을 전개해보자. 이후에 제시될 여러 편입 사례들은 프렌드에 대한 직접적인 반례들이지만,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전제하는 기존의 여러 입장들에 대한 반례로도 제시될 수 있다. 가령 실재론에 속하는 잘타 및 창조주의를 옹호하는 파우츠를 비롯하여, 반실재론에 속하는 에버렛 등은 앞으로 제시될 편입 사례들에 대해 잘못된 답변을 산출한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기존 입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실재론을 지지하는 잘타(Zalta 1983)의 경우, 허구적 대상에 귀속된 속성들이 동일한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 허구적 대상의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15] 또 창조주의를 옹호하는 파우츠(Pautz 2008)의 경우, 귀속된 속성들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허구적 이름들 사이의 공지칭에 실패함을 주장한다.[16]

---

15) 잘타는 두 추상적 대상들이 동일한 속성들을 암호화(encode)할 때, 동일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Zalta 1983: 13)

16) 그런데 이러한 파우츠의 주장은 허구적 대상의 존재에 따른 이점을 적절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대한 실재론의 이점은 일상적 이름들에서 나타난 설명들을 허구적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 이름의 사용과 질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잘 반영한다. 그런데 그녀는 크립키의 '괴델'/'슈미트' 사례(잘못된 속성들의 귀속에도 불구하고, 지칭에 성공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잘못된 믿음에도 불구하고 괴델에 대한 지칭이 발생함을 옹호하는 반면, 그것과 동형적인 허구적 이름의 사례(외과의사 홈즈 사례)에 대해서는 지칭에 성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Pautz 2008: 153-154)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두 종류의 이름들이 지칭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직관을 포섭할 수 있는 창조주의의 이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파우츠가 자신의 결론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창조주의 하에서는 일상적 이름과 허구적 이름 둘 다 지시체가 존재하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왜 허구적 이름의 경우에만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칭에 실패하는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한다.

덧붙여 반실재론 진영에 속한 지지자들 역시 허구 내 묘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허구적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가장 이론을 옹호하는 에버렛은 성공적인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기존 허구적 대상에게 귀속된 중요한 속성들이 새로운 허구 내에서도 유지될 것을 요구한다. (Everett 2013: 99-100) 이처럼 기존의 여러 입장들은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성립함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프렌드의 주장과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입장들은 다음과 같은 반례들을 갖는다.

충분조건 반례

귀속되는 속성들의 상당한 유사성이 발생하더라도, 편입에 실패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프렌드의 유사-공지칭 조건에 따라 허구적 이름을 사용할 때 활용하는 심적 파일 내 정보들이 지배적으로 단일한 심적 파일로부터 얻어졌다고 하더라도, 허구적 이름의 사용자들이 동일한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실패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사례3 작가인 지수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소설의 한 등장인물을 어떻게 묘사하는 것이 좋을지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조언을 얻고자 한다. 지수는 지인들에게 과거에 읽었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에 관한 매력적인 묘사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지수는 지인$_1$로부터는 그것이 그리스인이라는 묘사를, 지인$_2$로부터는 그것이 광부라는 묘사를, 지인$_3$으로부터는 그것이 난봉꾼이라는 묘사를 얻었다. 이러한 묘사들을 종합하여 지수는 그리스인 난봉꾼 광부 '테세우스'가 등장하는 단편 소설을 집필하였다. 지수의 새로운 소설에서 테세우스는 조연에 불과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묘사는 그리스인 난봉꾼 광부라는 점 외에는 별다른 묘사를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각각의 지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얻어낸 묘사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로 단편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인 카잔차키스가 자유롭게 창조해낸 조르바에 대한 빈 심적 파일로부터 얻어진 것들이다.

이 사례에서 허구적 대상에 귀속되는 속성들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창조한 테세우스는 카잔차키스의 조르바와 다른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가인 지수의 심적 파일 내 정보들이 카잔차키스가 자유롭게 창조해낸 조르바에 대한 빈 심적 파일로부터 지배적으로 얻어진 것이므로, 이 사례는 프렌드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지수의 '테세우스'는 카잔차키스의 '조르바'와 유사-공지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수가 카잔차키스의 조르바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 그러한 직관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조건 반례들

귀속된 속성들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허구적 대상의 편입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특히 프렌즈의 유사-공지칭 조건에 반하여 심적 파일에 포함된 정보들이 서로 다른 파일들로부터 얻어졌다고 하더라도, 유사-공지칭에 성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다음의 두 사례들을 살펴보자.

사례4 고전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스핀-오프(spin-off) 작품인 영화 <말레피센트>에서는 기존의 묘사와 상당히 다른 마녀 말레피센트(Maleficent)가 등장한다. 원작에서 말레피센트는 악한 요정이자 마녀이다. 그녀는 오로라 공주의 탄생 축하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공주에게 저주를 거는 악녀이다. 그러나 스핀-오프 영화에서 등장하는 말레피센트에 대한 묘사는 원작의 묘사와 상당히 다르다. 그녀가 마녀이며, 또 공주에게 저주를 건다는 점에서는 원작과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녀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신이 공주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점을 후회한다. 무엇보다 스핀-오프 작품에서 말레피센트는 자신이 걸었던 저주로부터 공주를 보호하고자 노력하며, 또 사랑이 담긴 입맞춤으로 공주를 영원한 잠에서 깨우는 장본인이다.

스핀-오프 작품에서 말레피센트는 마녀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원작과 동일하지만,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상당히 다른 성격과 행동들을 보인다. 기존 허구 내 묘사들이 상당히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직관은 이 사례를 기존 허구적 대상의 성공적인 편입 사례로 간주한다. 특히 새로운 말레피센트에 관한 정보들은 원작의 말레피센트에 대한 심적 파일로부터 지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녀에 대한 묘사들은 대부분 스핀-오프 작품에서 새롭게 주입된 것이므로, 프렌드의 유사-공지칭 조건에 따르면 스핀-오프 작품의 '말레피센트'는 원작의 '말레피센트'와 유사-공지칭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렌드의 조건이 산출하는 결과와 달리 두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유사-공지칭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덧붙여 또 다른 필요조건 반례를 제시할 수 있다.

> *사례5* 춘향전의 스핀-오프 작품인 『방자전』에서는 방자, 춘향, 몽룡이 등장한다. 각각의 인물들은 몇 가지 점들에서 원작의 묘사들과 유사하지만, 원작과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방자는 몽룡의 하인이지만, 춘향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인물이다. 춘향은 기생의 딸이긴 하지만 원작과 달리 대단한 야심가이며, 사실 방자를 사랑하는 인물이다. 몽룡은 과거 급제에 성공하여 암행어사로서 변사또를 혼내주는 인물이지만, 춘향을 단순히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비열한 인물이다.

스핀-오프 작품에서 방자, 춘향, 몽룡은 원작에서 제시된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상당히 다르다. 비록 생물학적 특성 및 사회적 지위 등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스핀-오프 작품에서 각 인물들의 심성과 행위, 관계 등은 원작의 묘사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원작에 각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 역시 스핀-오프 소설에서는 완전히 전도되어 있다. 스핀-오프 작품에서 춘향은 절개가 아니라 야심을, 몽룡은 헌신이 아니라 비열함을, 방자는 헌신을 상징한다. 그러나 허구 내 묘사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작품의 독자들은 기존 허구적 대상의 성공적인 편입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스핀-오프 작품의 인물들에 대한 정보들 대다수가 새로운 작품에서 주입된 정보들임을 고려해보았을 때, 무엇보다 새롭게 주입된 정

보가 단순히 사소한 변경이 아니라 각 인물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변화임을 고려해보았을 때, 프렌드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르면 새로운 작품에서 '방자', '춘향', '몽룡'은 원작의 '방자', '춘향', '몽룡'과 유사-공지칭에 실패한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두 작품들에 등장하는 각각의 이름들은 서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례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반례들은 허구 내 묘사들이 기존 허구적 대상의 편입과 독립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귀속된 속성들 대부분이 중첩된다고 해서 편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귀속된 속성들 대부분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편입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17]

반면 필자가 제시하는 편입 성공 조건은 허구 내 묘사들과 독립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므로, 앞선 사례들은 필자가 제시한 편입 조건에 대한 반례가 아니다. 오히려 필자가 앞서 제시한 성공적인 편입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앞서 제시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해명한다. 허구 내에서 귀속된 속성들과 독립적으로 작가의 편입 의도 부재에 따라 충분조건 반례의 편입 실패가 해명되며, 반대로 작가의 편입 의도 실현에 따라 필요조건 반례들의 편입 성공이 해명된다. 정리하자면, 기존 허구적 대상의 편입 성공 여부

---

17) 필자의 입장에서 필요조건에 관한 두 반례들은 중요한 정보들이 중첩되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입장에 대해 에버렛과 프렌드는 그러한 반례들이 자신들이 제시하는 필요조건에 관한 치명적인 비판이 아니라는 재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조건 사례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를 다시 검토하도록 만들어 줄 좋은 자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의 허구적 대상과 공유하는 정보들이 존재한다. 가령 말레피센트 사례의 경우, 원작의 묘사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마녀임 등의 속성들은 공유되고 있다. 만약 에버렛 및 프렌드가 제시한 중요한 속성 또는 중요한 정보가 이러한 것을 포함한다면, 해당 사례는 에버렛의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을, 그리고 프렌드가 제시한 유사-공지칭의 필요조건을 반박하지 못한다.

그러나 해당 반례가 에버렛 및 프렌드의 입장에 유효한 비판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은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들이 필요조건 비판 사례들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속성 또는 정보의 *중요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채로운 사례들에서 중요한 속성 또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획일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렛 및 프렌드의 주장에 대해서 중첩되기를 요구하는 속성의 중요성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주장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밝힐 수 없다.

는 기존 허구적 대상을 얼마나 닮게 묘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기존 허구적 대상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허구 내에서 적절히 실현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허구적 대상의 편입과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서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들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편입에 관한 문학적 관행을 살펴보았을 때, 특정 허구적 대상과 그것에 귀속된 허구 내 속성들 사이의 관계는 우리의 일반적 기대보다 훨씬 더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다. 우리는 새로운 작품에서 기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상당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허구 내 묘사들의 상당한 중첩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 판단한다.

나아가 필자가 제안하는 편입 방식에 따르면, 새로운 허구 작품의 작가는 기존 허구적 대상에 귀속된 속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대체 속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이가 연결 묘사들에 의해서 봉합되는 한에서 자신의 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연결 묘사들을 제시함으로써 동일성 판단을 유지한 채로 허구 내 귀속된 어떤 속성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 허구적 대상의 본질이라고 간주할만한 것은 허구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어떤 허구 내 묘사도 한 허구적 대상의 본질을 구성할 수 없다.

2장에서는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대한 반실재론의 입장을 채택하는 프렌드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정보들의 흐름에 호소함으로써 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프렌드는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하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프렌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러 입장들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허구적 대상의 편입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검토하면, 둘 사이에는 기존의 입장들이 기대하는 긴밀한 연관 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필자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및 공지칭 조건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서 창조주의가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인 허구적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제3장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창조주의

앞선 장에서는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대한 반실재론을 채택하는 프렌드의 입장에서 허구적 이름의 유사-공지칭이 어떻게 해명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프렌드의 입장 및 기존의 여러 입장들은 허구 내 묘사들과 허구적 대상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전제함에 따라,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 사례인 허구적 대상의 편입 사례들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들 사이의 관계를 일반적 기대보다 더 느슨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근본적으로 허구적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의해서 만족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허구적 실재론에 속하는 창조주의(Creationism)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장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방식 및 공지칭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장으로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인 허구적 대상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실재론 노선 하에서 창조주의

창조주의는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동시대의 많은 실재론자들은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창조주의(van Inwagen 1977; Searle 1979; Salmon 1998; Thomasson 1999, 2003; Kripke 2013 등)를 옹호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허구적 캐릭터는 존재한다. 가령 홈즈는 존재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 '홈즈'는 빈 이름이 아니라, 허구적 캐릭터인 홈즈를 지칭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 창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허구적 대상을 허구적 캐릭터로 이해될 경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허구적 대상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일상인들이 공유하는 반실재론적 믿음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믿음은 존재하는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홈즈에 관한 소설을 읽은 19세기 독자가 홈즈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제정신임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허구의 본성을 오해하고 있다고 간주할 것이다. 홈즈는 예컨대 옆집에 사는 사람을 만나는 방식으로 접할 수 없으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홈즈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답변하는 듯 보인다. 그런데 창조주의자 역시 홈즈를 찾아 떠나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계획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창조주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홈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상적 직관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대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허구적 캐릭터*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재론 노선에 속한 다른 입장들과의 비교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통해 토마슨(Thomasson), 새먼(Salmon) 등이 옹호하는 창조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다른 실재론적 입장들에 비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1장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허구적 대상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노선들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를 제시한다. 그중 한 가지 입장으로 허구적 대상에 관한 마이눙주의를 제시할 수 있다. 마이눙주의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은 존재라는 속성을 예화하지 않는 비존재 대상(nonexistent object)이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마이눙적 세계에 거주하는 대상이다.

마이눙주의의 입장에서 허구적 대상의 '창조'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마이눙주의는 허구적 대상의 '창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이눙주의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의 창조는 무로부터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창조'란 한낱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다. 허구적 대상의 '창조'는 작가가 특정한 기술구들을 동원하여 마이눙적 세계에 이미 있는 대상들 중 어느 것을 선택(select)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정리하자면, 허구적 대상들은 누군가가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마이눙적 세계에 지속적으로 거주했던 것들이며, 작가의 '창조'는 특정 기술구들을 동원하여 이미 있어 왔던 비존재 대상들 중 특정한 허구적 대상을 집어내는 활동에 불과하다.

반면 토마슨은 허구적 대상에 대해 마이눙주의자들의 주장과 다른 이해를 제시한다. 토마슨이 지지하는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캐릭터의 '창조'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창조주의자들은 허구적 캐릭터가 창조

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허구적 캐릭터의 창조는 작가의 창조 활동에 의해서 그 허구적 캐릭터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사건을 말한다. 따라서 허구적 캐릭터들은 지적 존재자가 수행하는 창조 행위에 의존하여,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다음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우연적 존재자이다.

마이눙주의는 허구적 대상이 인간의 특정 행위와 독립적으로 있는 대상임을, 반면 토마슨은 허구적 캐릭터가 인간의 특정 행위에 의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대상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에 있어서 보다 그럴듯한 입장은 어느 것인가? 허구적 캐릭터를 인간의 행위에 의해 존재하기 시작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토마슨의 입장은 허구적 대상에 관한 일상적 직관들을 잘 포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코난 도일의 창조 활동 이전에 홈즈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보자. 마이눙주의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무슨 행위를 수행하든지 간에, 그것과 독립적으로 홈즈는 이미 있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홈즈의 있음과 독립적이며, 코난 도일의 '창조' 행위는 이미 있었던 홈즈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작가인 코난 도일의 창조 행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홈즈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즉 특정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코난 도일의 창조 행위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만 홈즈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만약 코난 도일이 의사로서의 본업에만 충실함에 따라 소설을 집필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홈즈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허구적 캐릭터의 존재가 작가의 창조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직관에 따르면, 허구적 캐릭터가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는 우연적 존재자라는 토마슨의 입장이 더 그럴 듯하다.

덧붙여 허구적 캐릭터의 존재가 인간의 특정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해줄 또 다른 직관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에는 허구적 캐릭터의 소멸에 관한 직관들을 살펴보자. 마이눙주의자들은 허구적 캐릭터의 존재를 인간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설령 우주에서 모든 지적 존재자들이 멸종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적 존재자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허구적 캐릭터는 살아남는다는 결론을 산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일상적 직관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주의 모든 지적 존재자들이 사라진다면, 종이 위에 잉크들은 남아있을 수는 있어도, 허구적 대상들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적 존재자들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허구와 관련된 특정한 인지

적 활동들(가령 상상, 가장 등)을 수행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또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모종의 사유로 그 누구도 그러한 능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경우에도 허구적 캐릭터들은 모두 소멸될 것으로 생각된다.

허구적 캐릭터 일반이 모두 소멸되는 상황이 아니라, 한 허구적 캐릭터만 소멸되는 상황을 제시할 수도 있다. 우리가 허구와 관련된 여러 능력들을 갖추고 있으며, 또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허구적 캐릭터의 전파 가능성이 어느 매체(허구 작품이나 발화, 기억 등)에 의해서든지 모두 차단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가령 홈즈에 관한 작품들, 비평문들, 잡담들이 모두 소실되어 버리고, 심지어 홈즈에 관한 작품을 감상하고 기억하였던 마지막 사람마저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이처럼 홈즈에 대한 내용들이 전파될 가능성이 전부 차단되는 경우, 다른 허구적 캐릭터들은 존재하더라도 홈즈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인다. 허구적 캐릭터의 존재 및 소멸에 관한 이러한 일상적 직관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허구적 캐릭터는 작가의 창조 행위에 의존하여 존재하기 시작하며, 반대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소멸되기도 하는 우연적인 존재자로 보인다.

허구적 대상에 관한 또 다른 이해는 그것을 가능 세계에서만 거주하는 가능자로 이해하는 것이다.[18] 허구적 대상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가능 세계에 거주하는 대상이다. 그들은 허구적 대상을 허구 내 만족하는 것으로 묘사된 속성들을 모두 만족하면서도,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으로 이해한다. 가령 홈즈는 코난 도일의 홈즈에 대한 묘사들을 모두 만족하면서도,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허구적 대상을 허구 내에 제시된 모든 속성들을 만족하는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자(unactualized possiblilia)로 이해하는 입장은 어떠한 문제들을 갖는가? 토마슨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몇 가지 비판들을 제공한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비판은 허구적 대상을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자로서 이해하는 경우 단일한 허구적 대상을 특정하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허구적 대상을 가능자로 이해하는 입장이 성공적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

18) 플란팅가는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허구적 대상들이 우리 세계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했을 수 있는 대상들로 간주한다. 그들은 가능하지만 단지 현실적이지 않은(unactual) 대상들이다. (Plantinga 1974: 153)

허구 내 제시된 묘사들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만족하는 단일한 허구적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허구적 대상과 관련하여 어떤 속성들은 반드시 결정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이는 단일한 허구적 대상의 특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한 허구적 대상이 만족하는 속성들은 허구 작품에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속성들을 만족한다는 작가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허구적 대상과 관련하여 이처럼 관대한 속성 결정 방식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한 허구적 대상이 허구 내에서 제시되지 않은 어떤 속성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가령 홈즈의 머리카락 개수가 코난 도일이 집필한 허구 작품 내에 묘사되어 있지 않으며, 또 작가인 코난 도일 역시 홈즈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홈즈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수가 몇 개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허구 내에 귀속된 속성들을 모두 만족하다고 하더라도 머리카락의 개수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무한히 많은 가능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 것이 홈즈인지를 결정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 허구적 대상이 만족하는 속성들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사실들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그것이 만족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속성들은 무한히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격차에 따라 허구 내 귀속된 속성들을 만족하는 가능자로 허구적 대상을 이해하려는 가능주의는 원리적으로 단일한 허구적 대상을 특정하는 것에 실패한다.[19]

이와 달리 토마슨의 이해에 따르면, 허구적 캐릭터들은 단순히 존재할 수도 있는 존재자가 아니라, 작가의 창조 활동에 의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다. 그들은 가능 세계에서만 거주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바로 이 세계에도 거주한다. 그런데 허구적 캐릭터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대상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목격하는 것도 가능한가? 가령 홈즈를 만나려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토마슨에 따르면, 허구적 캐릭터는 추상적인 대상이다. 추상적 존재자인 허구적 캐릭

19) 허구적 캐릭터가 단순히 허구 내 속성을 만족하는 만족자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은 크립키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Kripke 1980: 157-158, Kripke 2013: 26-27)

터는 공간을 차지하는 구체적인 대상들(가령 컴퓨터, 책 등)과 달리,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만날 수 없는 대상이다. 따라서 허구적 캐릭터의 존재를 인정하는 창조주의 하에서도 홈즈를 만나고자 여행을 떠나려는 순진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목표하는 바가 필연적으로 성취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허구적 캐릭터의 정체는 무엇인가? 토마슨은 허구적 캐릭터가 정부나 법률, 사회 제도, 음악 등과 같은 인공물(artifact)이라고 주장한다. 인공물은 어떤 물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에 제작자의 의도적 행위가 결합되었을 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허구적 캐릭터는 허구적 캐릭터들은 그것이 등장하는 허구 작품(가령 텍스트나 발화, 기억 등)과 같은 물리적 기반에 의존하면서도, 작가의 의도적 행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대상이다.

3.2 의존적 대상으로서 허구적 캐릭터

지금까지 실재론 하의 다른 입장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창조주의가 허구적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토마슨의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주요 주장을 살펴보자. 토마슨에 따르면 허구적 캐릭터는 여러 요소들에 의존하는 존재자로 이해할 수 있다. 허구적 캐릭터가 맺는 의존 관계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서 논의된 허구적 캐릭터의 주요 특징들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허구적 캐릭터가 맺고 있는 의존 관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앞서 언급된 허구적 캐릭터의 여러 특징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의존 관계에 대한 토마슨의 이해를 살펴보자. 토마슨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의존 관계가 두 가지 구분점에 의해서 보다 세밀하게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일단 의존 관계를 "필연적으로, 만약 a가 존재한다면, b가 존재한다"로 이해해보자. 이때 의존하는 것(a)을 '의존자'라고 부르고, 반면 의존 당하는 것(b)을 '지지자'라고 부르자. 의존자와 지지자 사이의 의존 관계는, 토마슨이 제시하는 두 구분점들에 의해서 보다 정교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의존 관계의 첫 번째 구분은 지지자가 무엇이냐에 따른 구분이다. 지지자가 개별자라면, 그러한 의존을 '고정적인(rigid) 의존'이라고 부

르자. 반면 지지자가 개별자가 아니라 어떤 것의 유형이라면, 그러한 의존을 '유적(generic) 의존'이라고 부르자. 다음으로, 의존 관계의 두 번째 구분은 의존 관계의 성립을 위해서 지지자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요구하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의존자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에, 지지자도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지속적(constant) 의존'이라고 부르자. 반면 의존자가 존재하기 시작한 시간과 동시적으로 지지자의 존재가 요구되거나 또는 의존자가 존재하는 시간보다 앞서서 지지자의 존재가 요구되는 경우를 '역사적 의존'이라고 부르자.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토마슨이 주장하는 허구적 캐릭터와 관련된 직접적 의존 관계[20]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ⅰ) 한 허구적 캐릭터는 작가의 특정 창조 활동에 고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존한다.
(ⅱ) 한 허구적 캐릭터는 그것이 등장하는 허구 작품에 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존한다.

두 의존 관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ⅰ)에서 나타난 의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허구적 캐릭터와 작가의 특정 창조 활동이 역사적 의존 관계 하에 있다는 것은 허구적 캐릭터의 창조에 관한 우리의 직관을 잘 포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구적 캐릭터는 작가의 특정 창조 활동을 이후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대상이다. 또 작가의 특정 창조 활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허구적 캐릭터는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으로부터 지지되는 허구적 캐릭터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의존 관계 (ⅰ)은 허구적 캐릭터가 우연적 존재자임을 드러낸다. 그 허구적 캐릭터가 특정 시간(t_2)에 존재한다면, 작가의 창조 활동 역시 그 시간(t_2) 또는 그 이전 시간(t_1)에 반드시 존재한다. 반대로 허구적 캐릭터는

20) 그렇다면 간접적 의존 관계도 있는가? 토마슨은 한 허구적 캐릭터는 인간의 허구 감상 능력에 간접적으로, 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 허구적 캐릭터는 그것이 등장하는 허구 작품에 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존한다((ⅱ)에 따라). 그런데 허구 작품은 인간의 문학 감상 능력 유형에 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존한다. 지속적인 의존 관계는 이행성이 성립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허구적 캐릭터는 인간의 허구 감상 능력에 간접적으로 유적이고, 지속적인 의존 관계를 맺는다.

그러한 창조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허구적 캐릭터가 작가의 창조 활동에 의해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우연적 존재자임을 잘 보여준다. 두 번째로, 해당 의존 관계는 허구적 캐릭터가 인공물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허구적 캐릭터는 작가의 창조 활동이라는 *의도적* 활동에 고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물은 인간의 의도적 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허구적 캐릭터가 작가의 창조 활동에 의해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점은 허구적 캐릭터가 인공물임을 알려주는 징표이다.

덧붙여 의존 관계 (ⅰ)은 허구적 캐릭터의 본질에 관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2장에서 우리는 허구적 캐릭터에 귀속된 허구 내 속성들 중 그 어떤 것도 그것의 본질이 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한 작품에서 귀속된 속성이 무엇이든지, 또 그 속성이 해당 허구적 캐릭터와 관련하여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갖든지 간에, 연결 묘사들의 제시에 따른 동일성 판단의 유지 하에 어떤 타겟 속성도 대체될 수 있으므로, 허구 내 귀속된 속성들 중 어느 것도 본질이라고 간주할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캐릭터의 본질은 무엇인가? 허구적 캐릭터가 작가의 특정 창작 활동에 고정적이고 역사적으로 의존한다는 토마슨의 주장은 허구적 캐릭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의존 관계 (ⅰ)에 따르면, 허구적 캐릭터는 한 작가의 창조 행위에 고정적이고 역사적으로 의존한다. 이 경우 한 허구적 캐릭터가 고정적이고 역사적으로 의존하는 지지자인 작가의 특정 창조 행위는 그 허구적 캐릭터의 기원(origin)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기원 본질주의의의 설명을 적용한다면, 창조에 관한 속성(가령 특정-작가에-의해서-창조됨이라는 속성)이 한 허구적 캐릭터의 본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 허구적 캐릭터와 그것의 창조에 관한 속성(특정-작가에-의해서-창조됨) 사이에는 우리가 찾던 긴밀한 연결 관계가 성립하는가?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속성의 누락은 허구적 캐릭터의 동일성 판단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이러한 속성의 보존은 허구적 캐릭터의 동일성 판단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코난 도일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도일의 작품과 동일한 문자열을 가진 작품을 독립적으로 집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마크 트웨인이 집필한 소설에서도 영국을 무대로 '홈

즈(Holmes)'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과 '왓슨(Wats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협력하여 여러 사건들을 해결해가는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다. 덧붙여 마크 트웨인은 코난 도일의 작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코난 도일의 홈즈와 마크 트웨인의 홈즈가 서로 동일한 허구적 대상이라고 판단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작품에 나타난 홈즈들의 행적이 동일하더라도, 그것이 두 홈즈들의 동일성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냐는 두 허구적 캐릭터들의 동일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반대로 한 작가가 자신이 창조한 허구적 캐릭터와 관련해서 기존과 양립하기 어려운 묘사들을 대규모로 추가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가령 코난 도일의 홈즈에 대한 미출판 원고가 발견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미출판 원고에서는 마지막 사건을 해결한 홈즈가 사실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이며, 또 사설 탐정이 아니라 지구의 침략을 위해 파견된 정찰 대원이었다는 등 온갖 괴상한 묘사들이 나타나 있다. 기존의 묘사와 비교하여 새로운 묘사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코난 도일이 새로운 작품에서 등장한 허구적 대상을 기존 작품에서 등장한 허구적 대상과 동일한 대상으로 의도한 것이 사실일 경우, 그러한 극단적인 변화에 불구하고 그들이 동일한 대상이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코난 도일의 작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작품의 허구적 대상이 이전과 다른 허구적 대상임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례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허구적 캐릭터의 본질은 허구 내에서 그것이 만족하는 것으로 가장된 어떤 속성이 아니라, 그것이 작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허구 외적 속성으로 생각된다. 가령 코난-도일에-의해서-창조됨이라는 속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홈즈와 분리될 수 없는 속성으로 보인다. 따라서 허구적 캐릭터의 창조와 관련된 속성이 허구적 캐릭터의 본질이다.

다음으로 (ii)에서 나타난 의존 관계는 허구적 캐릭터가 추상적인 대상임을 잘 보여준다. 이 점을 구체적인 인공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해보자. 가령 눈앞에 구체적인 인공물인 탁자가 놓여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 탁자는 탁자-모양으로-정렬된-물체에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의존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만약 그 탁자-모양으로-정렬된-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탁자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허구적 캐릭터도 그것의

물리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허구적 작품에 의존한다. 다만, 구체적인 인공물과의 차이점은 허구적 캐릭터의 경우, 물리적 기반에 유적이고 지속적인 의존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개별적인 작품이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등장하는 다른 작품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그 허구적 캐릭터는 존재할 수 있다. 가령 홈즈가 등장하는 모든 허구 작품들이 파괴된다면, 홈즈는 그것들과 같이 소멸해버릴 것이다. 따라서 홈즈는 허구 작품 일반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러한 물리적 기반들 중 어느 한 작품이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허구적 캐릭터는 소멸하지 않는다. 가령 내 눈앞에 있는 홈즈에 대한 허구 작품 『주홍색 연구』를 태워버린다고 하더라도, 홈즈가 등장하는 다른 많은 작품들(『주홍색 연구』의 다른 인쇄본, 『네 사람의 서명』 등)이 남아있는 한, 홈즈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허구적 캐릭터가 물리적 기반인 허구 작품에 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홈즈가 공간적 위치를 결여하고 있는 추상적인 대상이라는 점을 잘 드러낸다. 정리하자면, 허구적 캐릭터는 그것이 등장하는 허구 작품 일반에 의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인 허구 작품에 의존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의존 관계는 허구적 캐릭터가 공간적 위치를 결여하고 있는 추상적 존재자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지금까지 토마슨이 허구적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마슨의 주장에 따르면 허구적 캐릭터는 현실 세계에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 인공물이다. 나아가 허구적 캐릭터는 다양한 대상들(작가의 창조 행위 및 허구 작품 일반)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적 존재자이다. 이러한 이해는 허구적 캐릭터에 관한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며, 오히려 허구적 캐릭터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들을 포섭하는 온건한 주장으로 보인다.

3.3 허구적 대상의 이면성과 허구적 캐릭터

앞 절에서는 허구적 캐릭터의 의존 관계들을 분석함으로써 창조주의가 존재론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허구적 캐릭터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해졌다. 덧붙여 허구적 대상의 이면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면, 창조주의가 제안하는 허구적 캐릭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허구적 대상의 이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주의가 제안하는 허구적 캐릭터가 어떻게 허구적 대상의 이면성을 포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발화들은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말해지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허구적 대상들에 대한 문장들은 허구의 차원에서 발화되기도 하지만, 현실의 차원에서 발화되기도 한다. 가령 1장에서 살펴본 두 문장들을 살펴보자.

(1) 홈즈는 사립 탐정이다.
(5) 홈즈는 허구적 캐릭터이다.

두 문장들이 발화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1)은 허구적 차원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5)는 허구 밖 현실 세계의 차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허구적 대상은 서로 다른 두 차원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허구적 대상의 이면성이라고 부르자. 허구적 대상에 대한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그것이 허구적 대상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허구적 대상의 고유한 특징인 이면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해야만 한다.

허구적 대상의 이면성을 포착하기 위한 시도들을 살펴보자. 우선 허구적 대상의 이면성을 포착하기 위한 크립키의 주장을 살펴보자. 크립키에 따르면 허구적 대상에 대한 문장에 등장하는 술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Kripke 2013: 74-76) 첫 번째 술어 사용 방식은 암묵적 조작자(implicit qualifier)인 "허구적으로(fictionally)" 또는 "이야기에서(in the story)"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그러한 암묵적 조작자를 사용하지 않고, 단적으로 술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1)을 발화하는 전형적인 경우 발화자는 허구 안의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 조작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술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암묵적 조작자는 (1)이 특정 허구 안의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포착한다. 반면 (5)를 발화하는 전형적인 경우, 발화자는 허구적 내용이 아니라, 허구 밖 현실의 차원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허구에 관한 암묵적 조작자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술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적인 술어 사용 방식은

해당 문장이 허구 안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잘 포착한다.

덧붙여 크립키는 허구적 이름의 애매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1] 이름 표현들의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각각의 허구적 이름들이 어느 층위에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각각의 지시체가 다를 수 있다. 만약 허구적 이름이 허구 안에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빈 이름인 반면, 허구 밖에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가령 (1)에서 등장하는 허구적 이름 '홈즈'는 빈 이름인 반면에, (5)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형태의 허구적 이름 '홈즈'는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하는 진정한 이름이다. 정리하자면, 크립키가 주장하는 허구적 이름의 애매성 및 두 가지 방식의 술어 사용은 허구적 대상이 복수의 차원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좋은 도구들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크립키가 제안한 분류보다 더 간단한 주장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새먼의 주장처럼 허구적 이름이 애매하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항상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함을 가정해보자. 그러한 입장에 따르면 한 허구적 이름은 애매하지 않고, 언제나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한다.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를 허구적 캐릭터로 고정하는 입장에서 허구적 대상의 이면성은 어떻게 포착될 수 있는가? 이러한 입장은 허구적 대상의 이면성을 포착하기 위해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가 두 가지 속성 예화 방식들을 가지고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 속성 예화 방식은 한 허구적 캐릭터가 허구 내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묘사된 속성들을 가장적으로 예화하는 것이다. 가령 허구 내에서 홈즈는 사립 탐정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작가인 코난 도일이 허구적 캐릭터 홈즈에게 사립-탐정임이라는 속성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홈즈가 이러한 속성을 만족하는가? 허구적 캐릭터 홈즈는 허구 내에서 그러한 속성을 만족한다고 가장될 뿐, 그러한 속성을 단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추상적인 인공물인 허구적 캐릭터가 사립 탐정일 수는 없으므로, 홈즈는 그러한 속성을 필연적으로 예화하지 못한다. 이처럼 한 허구 내에서 허구적 캐릭터가 어떤 속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 허구적 캐릭터가 그러한 속성을 가장적으로 예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가장적 예화'라고 부르자. 이러한 용법에 따르면 추상적 인공물인 허구적 캐릭터 홈즈는 사립-탐정임이라는 속

21) 크립키의 허구적 이름의 애매성에 대한 새먼의 분석(1998: 293-294)을 참조하라.

성을 가장적으로만 예화한다. 왜냐하면 특정 허구 내에서 홈즈는 그러한 속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장되지만, 홈즈가 그러한 속성을 단적으로 만족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속성 예화 방식은 특정 속성을 단적으로 예화하는 것이다. 허구적 캐릭터가 단적으로 예화하는 속성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허구적 캐릭터는 허구 내에서 특정 속성을 가장적으로 예화함이라는 특수한 형식의 속성들을 예화한다. 다음의 문장들을 살펴보자.

(7) 홈즈는 특정 허구 내에서 사립 탐정으로 가장된다.
(8) 점순이는 특정 허구 내에서 당돌한 소녀로 가장된다.

첫 번째 속성 예화 방식을 설명할 때 살펴보았듯이, 추상적 인공물인 허구적 캐릭터는 허구 내 제시된 속성들을 실제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7)과 (8)처럼 허구적 캐릭터가 허구 내에서 특정한 속성들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장되는 것은 단적으로 참이다. 가령 허구적 캐릭터 홈즈가 실제로 사립 탐정은 아니다. 허구적 캐릭터는 추상적인 대상이므로, 홈즈는 사립 탐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립 탐정일 수도 없다. 추상적 존재자가 도대체 어떻게 탐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다만 허구적 캐릭터인 홈즈는 코난 도일에 의해서 사립-탐정임이라는 속성들을 만족한다고 가장될 뿐이다. 따라서 홈즈는 특정-허구-내에서-사립-탐정으로-가장됨이라는 속성을 진정으로 예화한다.

다음으로 허구적 캐릭터는 그것의 존재론적 특징들 덕분에 특정 속성들을 진정으로 예화한다. 가령 홈즈는 다음의 속성들을 진정으로 예화한다; 추상적임, 코난-도일에-의해-창조됨 등. 추상적 인공물인 홈즈는 이러한 속성들을 가장적으로 예화하지 않는다. 가령 홈즈가 등장하는 허구 작품 『주홍색 연구』에서는 홈즈가 추상적인 대상이라는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또 해당 작품 내에서는 홈즈가 코난 도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서술이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홈즈는 그러한 속성들을 가장적으로 예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홈즈는 그러한 속성들을 실제로 예화한다. 이러한 방식의 속성 예화 방식을 속성들의 '진정한 예화'라고 부르자.

허구적 대상의 이면성과 관련하여 새먼(Salmon 1998)은 허구적 캐릭터의 정체에 대한 보다 선명한 이해를 제시한다. 그는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창

조주의를 옹호하면서, 허구적 캐릭터를 독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상을 하도록 돕는 일종의 장치라고 간주한다. 허구적 캐릭터는 그것이 등장하는 허구 내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됨으로써, 허구를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귀속된 내용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인공적 장치이다. 그들의 기능은 허구 내에서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만족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허구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적절히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구적 캐릭터는 "허구 내에서 그러한 역할(role)을 *수행(play)하거나 차지하는* 허구의 구성 요소"[22]일 뿐, 허구 내 귀속된 속성들을 실제로 만족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구적 캐릭터를 배우로 비유해보자. 허구적 캐릭터는 영화 속 특정한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에 비유될 수 있다. 가령 배우 톰 크루즈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첩보 요원을 연기한다. 그런데 그러한 허구 내 사실(truth in the fiction)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배우 톰 크루즈가 실제로 첩보 요원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허구 내에서 홈즈는 사설 탐정으로 묘사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구적 캐릭터 홈즈가 실제로 사설 탐정인 것은 아니다.[23] 그것은 허구 내에서 사설 탐정으로 묘사되는 추상적 인공물이다.

정리하자면, 허구적 캐릭터들은 작가에 의해서 허구 내에서 귀속된 속성들을 진정으로 예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허구 내 제시된 여러 속성들을 예화하는 것으로 가장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들이 진정으로 예화하는 속성들은 특수한 형식의 속성들 및 그들이 추상적 인공물이라는 점과 관련된 여러 속성들이다. 이처럼 두 가지 방식의 속성 예화(가장적 예화, 진정한 예화) 방식들을 통해서 추상적 인공물인 허구적 캐릭터가 어떻게 허구 내에서 제시된 속성들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이면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허구적 캐릭터의 정체를 보다 생생하게 표현해 줄 한 가지 구분을 제시할 수 있다. 허구적 대상의 이면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의가 *허구적 캐릭터*에

---

22) Salmon 1998: 301.

23) 물론 둘 사이의 차이도 존재한다. 구체적 존재자인 배우는 영화 작품의 진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새먼에 따르면, 허구적 캐릭터는 그것이 등장하는 허구의 진정한 부분이다.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허용할 뿐, *허구적 인물*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24] 앞서 살펴본 마이눙주의나 가능주의는 허구 내에서 묘사된 속성들을 단적으로 만족하는 대상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개입한다. 가령 그들은 홈즈가 탐정이고, 베이커가 거리에 살며, 인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홈즈라는 *허구적 인물*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조주의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창조주의는 허구 작품에서 제시된 특정 속성을 단적으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오히려 창조주의는 그러한 속성들을 만족하는 허구적 인물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창조주의자들은 허구 작품에서 이러저러하다고 묘사된 허구적 캐릭터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창조주의는 허구 내에서 특정 속성을 만족한다고 묘사될 뿐인 허구적 캐릭터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할 뿐, 허구 내에서 특정 속성을 만족하는 허구적 인물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허구적 캐릭터에 관한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허구 내 묘사들은 허구 내 등장인물에 관한 묘사일 뿐이다. 이러한 허구 내 묘사들은 등장인물의 배후에 놓여 있는 진정한 존재자인 허구적 캐릭터의 참된 모습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허구적 캐릭터는 문화적이고 인공적인 장치일 뿐, 허구 내에서 묘사된 것처럼 말하거나 걷거나 탐정 역할을 하는 어떤 인물이 아니다. 허구적 대상의 본성에 관한 일반적 오해, 즉 그것을 허구적 인물로 받아들이는 착각은 허구적 캐릭터가 허구 작품이라는 특수한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는 점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허구적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가장적 묘사들로 구성된 허구 작품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허구적 캐릭터의 진정한 정체를 허구 내에 묘사된 등장인물과 혼동한다.

이제 허구적 대상에 대한 창조주의의 독특한 이해가 어떻게 기존의 논의들과 연결되는 것인지를 검토해보자. 허구적 대상을 허구적 캐릭터로 이해하는 경우, 허구 내 묘사들이 허구적 대상과 오직 느슨한 관계만을 맺고 있다는 2장의 결론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허구적 캐릭터는 허구 내 묘사된

24) 둘의 구분에 관하여 이정규 교수(성균관대학교 철학과)의 현대영미철학특강(2020년 2학기) 및 새먼(Salmon 1998), 프리델(Friedell 2016)로부터 많은 힌트를 얻었다. 특히 둘의 구분에 관하여 검토할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이정규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속성들과 단적인 만족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오히려 허구적 캐릭터와 허구 내 묘사들 사이에는 가장적 만족 관계만이 성립할 뿐이다. 이는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 사이에 단적인 만족 관계보다 더 약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둘 사이에 성립하는 가장적 만족 관계는 어째서 허구 내 묘사들이 허구적 대상의 본질을 구성하지 못하는지를 잘 설명한다. 허구 내에서 제공되는 묘사들은 작가에 의해서 우연히 제시된 것이다. 가령 코난 도일이 홈즈에 대해 묘사하면서 홈즈가 사설 탐정이 아니라, 경찰청에 정식으로 소속된 탐정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작가에 의해서 우연히 제공되는 허구 내 묘사들은 허구적 대상의 본질을 구성하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허구적 대상을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허구적 캐릭터로 이해하는 경우, 허구적 대상과 허구 내 묘사가 맺는 관계가 일반적 기대보다 훨씬 느슨한 관계만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허구적 캐릭터 홈즈와 사설-탐정임이라는 속성이 맺는 가장적 만족 관계는, 예컨대 둘이-같이-자주-언급됨이라는 관계만큼이나 느슨한 관계에 불과하다. 이는 허구 작품 내에서 묘사된 속성들 중 어느 것도 허구적 캐릭터의 본질을 구성할 정도로 강한 연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나아가 창조주의는 종래에 제시되었던 반실재론 대 실재론의 구분과 다른, 새로운 구분을 제공한다. 본고의 1장에서 필자는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적 개입을 승인하는지의 여부를 구획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른 답변에 따라 각각을 허구적 대상에 관한 실재론과 허구적 대상에 관한 반실재론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반실재론자들은 허구 내에서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만족하는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창조주의를 제외한 실재론자들은 반실재론자들이 거부하는 바로 그 허구적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실재론자들은 허구적 인물에 대한 반실재론적 직관과 직접 충돌한다.

그런데 창조주의는 허구적 인물의 존재에 관한 반실재론과 기존 실재론 사이의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에 논의해왔던 대상과 창조주의가 존재론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창조주의 역시 어떤 대상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고, 그것을 허구적 대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마이눙주의 및 가능주의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

나 창조주의자들이 개입하고자 하는 대상이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허구적 캐릭터임을 고려해본다면, 그들은 종래에 입장들(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 및 반실재론)이 논의하고 있는 대상과 다른, 새로운 대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창조주의가 허구적 대상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허구적 인물이 아닌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통해서 창조주의가 획득하는 중요한 이점은 창조주의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일상인들의 반실재론적 직관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영국에 거주하는 사립 탐정 홈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상적 직관은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을 추동하는 핵심 동기이다. 그런데 창조주의는, 실재론 노선 하의 다른 입장들과 달리, 이 일상적 직관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상인들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상식인들의 건전한 직관을 추종하고 있다. 다만 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사립 탐정으로 묘사된 허구적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허구적 캐릭터 홈즈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만을 승인한다. 정리하자면, 그들은 실재론 진영에 속해있으며, 이 덕분에 허구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자원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 동시에 창조주의가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허구적 캐릭터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한다는 점 덕분에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상적 직관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제4장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칭

앞선 장에서는 창조주의가 존재론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허구적 캐릭터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창조주의의 이해를 바탕으로 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4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될 것이다. 우선,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은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덧붙여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을 검토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볼 것이다(4.1). 두 번째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창조주의자인 토마슨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에 관한 토마슨의 주장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다(4.2). 다음으로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조건 및 허구적 이름들의 공지칭 조건에 관한 필자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4.3). 이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창조주의의 입장에 따라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및 공지칭 조건이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4.1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 문제

창조주의는 반실재론과 달리 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 현상들을 해명할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확보한다. 창조주의에 따르면, 허구적 이름 '홈즈'는 지시체를 결여하는 빈 이름이 아니다. 허구적 이름 '홈즈'는 존재하는 대상을 지칭하므로 진정한 이름이다. 다만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이름이 지칭에 성공하는 대상은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허구적 캐릭터이다.

이제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이름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지시체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나아가 그것의 정체를 밝힌 것만으로 허구적 이름의 지칭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물론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반실재론과 비교했을 때, 창조주의는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에 호소하여 해당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점을

얻는다. 그러나 허구적 이름의 지칭과 관련된 몇몇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창조주의가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허구적 캐릭터는 추상적인 인공물이므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지칭을 설명하는 기존의 인과적 모델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추상적인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명명식(baptism)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일반 독자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특정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요구된다.

만약 허구적 캐릭터의 지칭과 관련된 문제들이 적절히 해결될 수 없다면, 이는 실재론의 입장을 지지할 핵심 근거를 잃는 셈이다. 허구적 캐릭터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이 우리의 직관을 훼손하지 않는 일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허구적 캐릭터의 지칭을 적절히 설명해 줄 이론이 부재하는 경우, 나아가 만약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 창조주의의 유용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이 무해한 것임을 논증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새먼이 제시한 비유(Salmon 1998: 298)를 재활용하여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 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해보자.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 이론이 부재한 상황은 운전면허를 가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로 값비싼 스포츠카를 구매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존재론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취득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허구적 이름의 지칭적 사용은 일상적 이름의 지칭적 사용과 별다른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름 '빌 게이츠'를 사용하면서 빌 게이츠를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허구적 이름 '셜록 홈즈'를 사용하면서 홈즈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빌 게이츠와 셜록 홈즈는 존재론적 특징들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갖지만, 어떤 대상을 지칭함에 있어서 허구적 이름과 일상적 이름은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에 기반하여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실재론의 노선 하에서는 지칭을 설명하는 주요 설명항인 지시체가 결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상적 이름의 지시체-결정에 관한 설명을 적절히 확장함으로써 두 이름 사용들 사이의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다.

우선 일상적인 이름의 지시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자. 도넬란(Donnellan 1974) 및 크립키(Kripke 1980) 등이 지지하는 지시체-결정(reference-fixing) 모델에 따르면, 지칭적으로 사용된 한 이름 표현의 지시체는 그 이름 사용과 인과-의도적으로 연결된 최초의 명명식(initial baptism)이 대한 대상이다. 가령 누군가가 '빌 게이츠'를 사용할 경우, 그 이름 사용의 인과-의도적 연결을 추적하였을 때 그 끝지점에 최초의 이름 사용인 명명식이 등장할 것이며, 그 명명식은 명명 대상인 지시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후속하는 이름 사용들은 이 최초의 명명식이 대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성공한다.

그렇다면 최초의 명명식은 무엇인가? 명명식은 어떤 대상에 이름 표현을 부착함으로써, 특정 대상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건이다.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은 명명식에 의해 도입된 이름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매번 복잡한 기술구들을 동원하지 않고도 지시체를 가리킬 수 있게 된다.

명명식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명명식은 이름 표현과 명명 대상, 그리고 명명자 등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사건이다. 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명명자가 명명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자. 세인스버리(Sainsbury 2005)에 따르면, 명명자는 자신이 이름을 붙이려는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의도들을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상-관계적 의도(object-related intention)이다. 대상-관계적 의도는 대상과 맺는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명명 대상을 특정하려는 의도이다. 대표적으로 지각과 같이 비개념적이고 인과적인 관계를 통해서 명명자는 명명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가령 명명자가 자신의 눈앞에 놓인 한 식물에 대해 그것을 '초록이'라고 명명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 경우 명명자는 지각이라는 인과적 관계를 통해 그 관계와 연결된 대상을 특정하는 것에 성공하고, 이를 통해 그 대상에 대한 명명식을 발생시킨다. 또 다른 특정 의도는 기술적 의도(descriptive intention)이다. 이는 특정한 기술구들을 만족하는 대상을 특정하려는 의도이다. 기술적 의도는 명명자가 제시하는 기술구들에 의해 매개된 대상을 특정한다는 점에서 대상-의존적 의도와 다르다. 가령 명명자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라는 한정기술구를 활용해서 그것의 만족자에 대해 '길쭉이'라고 명명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 명명자는 기술구들의 매개를 통해 자신이 명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명명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명명자는 두 의도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명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며, 이 특정 의도와 연결된 대상이 명명식을 통해 도입된 이름의 지시체로 결정된다.[25]

그렇다면 최초의 명명식이 발생한 이후에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은 어떻게 명명식이 대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성공하는가?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은 지시체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또는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칭에 성공할 수 있다. 지시체-결정에 관한 직접 지칭 이론의 설명에 따르면, 지시체에 대한 무지나 오류에도 불구하고 지칭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최초의 명명식과 인과-의도적 연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가 특정 이름 표현을 지칭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그 이름 사용의 인과-의도적 연결에 따라 최초의 명명식과 연결되어 있다면,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가 지시체에 관해 잘 모르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초의 명명식이 대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속하는 이름 사용들과 최초의 명명식을 연결해주는 인과-의도적 연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인과-의도적 연결은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이 특정 이름 표현을 인과적으로 전달받고, 그렇게 전달받은 이름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이하 '지칭 차용 의도')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때 지칭 차용 의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칭 차용 의도]
> 자신이 전달받은 이름 표현을 지칭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전 이름 사용자가 지칭하였던 바로 그 대상을 동일하게 지칭하려는 의도

가령 이름 '빌 게이츠'가 전파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는 누군가가 지칭적으로 사용한 이름 '빌 게이츠'을 듣거나 봄으로써 해당 이름을 인과적으로 전달받는다. 나아가 그 사람이 이전 사용자가 지

---

25) 명명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의도를 갖지만, 두 의도들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 나아가 두 유형의 의도들을 동시에 가질 때, 각 의도들에 연결된 대상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두 의도들과 연결된 대상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대상에 대한 명명식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의도들 중 보다 강한 의도와 연결된 대상이 해당 이름의 지시체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세인스버리(Sainsbury 2005: 106-108)를 참조하라.

칭하였던 그 대상을 동일한 이름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지칭하고자 의도하는 경우, 이전 이름 사용에 대한 인과-의도적 연결이 성립한다. 인과-의도적 관계에 의해서 연결된 이름 사용들의 연쇄를 추적하면, 그 끝 지점에는 최초의 명명식이 발견될 것이며, 이에 따라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은 그 최초의 명명식이 대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직접 지칭 이론 하에서 일상적 이름의 지시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직접 지칭 이론 하에서 한 이름의 지시체-결정(reference-fixing)은 이름 사용들의 인과적이고 역사적인 연결에 의해 설명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지시체-결정 모델을 허구적 이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인과적 모델을 허구적 이름에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허구적 이름의 경우 그것이 지칭하는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허구적 이름들은 지시체가 결여된 빈 이름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명을 허구적 이름에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창조주의를 전제하는 경우, 지시체의 부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지시체가 확보되었으므로, 지시체-결정에 관한 인과적 모델을 곧바로 허구적 이름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3장에서 제시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지시체-결정에 관한 인과적 모델을 허구적 이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에서 명명자가 그 이름의 지시체인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선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캐릭터는 추상적 인공물이다. 그들은 공간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추상적 대상이므로, 명명자와 인과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따라서 추상적인 허구적 캐릭터에 대해 가령 지각 등을 통한 대상-의존적 의도를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기술적 의도에 따라 지시체를 특정할 수는 없는가? 명명자가 제시하는 여러 허구 내 묘사들의 만족자로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를 특정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크립키[26] 및 토마슨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대안도 실패한다. 그들은 허구 내 묘사들의 만족자가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크립키와 토마슨에 따르면, 허구 내

26) Kripke 1980: 157-158, Kripke 2013: 26-27.

속성들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속성들에 있어서 우연한 일치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과 다른 대상일 수 있다. 가령 허구 내 홈즈에 관한 모든 묘사들을 만족하는 사람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그 사람이 지금껏 우리가 '홈즈'를 사용해서 지칭해왔던 대상인가? 크립키에 따르면, 그 사람이 우리가 여태껏 사용한 이름 '홈즈'의 지시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가인 코난 도일이 이름 '홈즈'에 관한 명명식을 발생시킨 상황에서 바로 그 사람을 지칭하고자 의도했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아마도 코난 도일은 이름 'Holmes'를 사용하면서 그 사람을 지칭하고자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새로운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고자 의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홈즈에 관한 모든 업적을 만족하는 사람이 등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껏 사용한 이름 '홈즈'의 지시체는 아니다.[27] 이 경우 그 만족자와 홈즈 사이의 속성들의 일치는 한낱 우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허구 내에 묘사된 속성들을 만족하는 대상이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가 아닐 수 있다.

지시체-결정에 관한 직접 지칭 이론 하에서 명명식의 지시체는 명명자가 갖는 두 종류의 특정 의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앞선 논의에 따르면, 대상-의존적 의도 및 기술적 의도 둘 다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를 특정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직접 지칭 이론의 설명 모델을 허구적 이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4.2 허구적 이름의 지칭에 관한 토마슨의 주장과 애매성 문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에 대해 토마슨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추상적

27) 만약 그 묘사들의 만족자가 코난 도일이 실제로 지칭하고자 의도했던 사람인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 필자는 해당 이름이 지금껏 허구적 캐릭터가 아니라, 바로 그 만족자를 지칭했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 경우 해당 이름은 그 만족자를 지칭한 것에는 성공해왔지만, 이름 사용자들은 그 이름이 허구적 대상을 지칭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허구적 대용물(fictional surrogate) 및 지시체-전환(reference-shift) 등 다른 주제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단 본고에서는 필자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인 허구적 캐릭터에 대해 우리는 인과적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구 내 제시된 모든 묘사들의 만족자 역시 허구적 이름을 통해서 지칭해왔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마슨은 이름의 지시치-결정에 있어서 또 다른 관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마슨은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에 있어서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녀는 허구적 이름 표현의 지시체 결정에 있어서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토마슨의 주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살펴보자. 지시체-결정에 있어서 기존의 인과적 관계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의존 관계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을 이름의 지시체-결정에 관한 '확장된 인과적 모델'이라고 부르자. 확장된 인과적 모델은 기존의 명명식을 대체하여 '허구 내 명명식(intra fictional ceremony)'을 제시한다. 허구 내 명명식에서 지시체를 특정하는 방식은 기존의 명명식에서 지시체를 특정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기존 인과적 모델의 명명식에서는 명명자가 직접 명명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한 이름 표현과 단일한 대상 사이의 연결을 마련하였다. 명명 대상은 명명자과 인과적 관계를 맺거나 또는 명명자가 제시하는 기술구들과 기술적 만족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러한 관계들에 의한 연결 덕분에 명명식이 가능했다.

그런데 토마슨이 주장하는 허구 내 명명식에서 명명자는 이러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 허구 내 명명식에서는 특정 이름 표현이 허구 작품 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덕분에 한 이름 표현과 명명 대상인 허구적 캐릭터 사이의 연결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어떻게 명명자의 인지적 노력에 호소함 없이 특정 이름이 허구에 등장한다는 점만으로 그 이름 표현과 한 허구적 대상 사이의 연결 관계가 성립하는가? 토마슨에 따르면, 허구 내 사용된 이름 표현은 특정 허구적 캐릭터가 존재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에 해당한다. 반대로 허구적 캐릭터는 허구 작품 내에 등장한 이름 표현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이처럼 허구적 캐릭터와 그것의 물리적 기반인 허구 내 사용된 이름 표현 사이에는 존재론적 의존 관계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명명자는 자신이 직접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함이 없이, 단순히 특정 이름을 허구 내에서 문자적으로 사용함(textual use)으로써 그것과 존재론적 의존 관

계를 맺는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할 수 있다.

기존의 명명식을 허구 내 명명식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서 드러나는 토마슨의 전략은 명명자가 명명 대상을 직접 특정하는 부담을 제거하고, 그것을 대신하여 허구 내 이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객관적 관계에 호소하여 한 이름 표현과 한 허구적 캐릭터 사이의 연결을 확보하는 것이다. 가령 코난 도일이 자신의 작품 내에서 "Holmes is a competent detective." 라고 기술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허구 내에서 문자적으로 사용된 특정한 이름 표현 'Holmes'와 명명 대상인 허구적 캐릭터 홈즈 사이에는 존재론적 의존 관계가 성립한다. 지시체-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가 허용된다면, 이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가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허구 내 명명식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명명식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 단어들에 기반하고 있는 캐릭터가 'Holmes'라고 불린다. 물론 작가가 이러한 명명식을 명시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토마슨이 주장하는 것은 한 이름의 지시체-결정에 있어서 인과적 관계뿐만 아니라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추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작가의 허구 작품 내 이름의 문자적 사용은 그러한 명명식을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허구적 이름의 도입에 관한 토마슨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허구 작품 내에 사용된 이름 표현은 허구적 캐릭터의 물리적 기반이며, 반대로 허구적 캐릭터는 허구 작품 내 이름 표현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만약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추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호소하여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연결에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호소하여 후속하는 이름 사용들이 어떻게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작가가 아닌 일반 독자가 허구적 이름을 지칭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지칭적으로 사용한 한 이름 표현의 인과적 역사를 추적한다면, 그 인과적 연쇄의 끝 지점에는 허구 내 이름 표현이 발견될 것이다. 한 허구적 캐릭터는 이 특정 이름 표현에 대해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지칭적으로 사용된 후속하는 이름 표현들의 인과적 연결 및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호소함으로써 특정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에 성공할 수 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토마슨이 제시하는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 지칭적으로 사용된 한 이름이 허구적 캐릭터 o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그 이름의 인과적 연쇄를 추적하였을 때, 그 끝 지점에 허구적 캐릭터 o가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허구 작품 내 이름 표현 'N'이 발견된다.

이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에 관한 토마슨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그녀는 일반적인 명명식 대신 허구 내 명명식을 활용하여 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허구 내 명명식은 작가가 한 이름 표현을 허구 내에 문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떻게 허구 내 이름 표현의 문자적 사용이 단일한 지시체를 특정할 수 있는가? 이는 허구 내 사용된 한 이름 표현이 특정 허구적 캐릭터가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물리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시체-결정에 있어서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추가적으로 허용한다면, 허구 내 이름 표현과 허구적 캐릭터 사이에 성립하는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통해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토마슨의 새로운 지시체-결정 방식을 채택한다면, 추상적 대상 일반에 대한 지칭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도 설명할 수 있다. 여러 추상적 대상들(가령 국가, 음악 등)은 물리적 기반(가령 영토, 악보 등)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만약 이름 사용자가 물리적 기반에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물리적 기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추상적 대상에 대한 지칭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마슨이 제시하는 확장된 인과적 모델은 추상적 대상 일반에 대한 지칭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마슨 견해의 문제점

그런데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따른 지칭이 정말로 *단일한* 추상적 대상에 대한 지칭의 성공을 보장하는가? 한 이름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단일한 대상을 지칭한다. 종래의 인과적 모델이 단일한 대상에 대한 지칭에 성

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명식에서 명명자가 갖는 특정 의도에 따라 단일한 대상을 명명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마슨의 확장된 인과적 모델 하에서는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호소하여 명명 대상을 특정한다. 그런데 존재론적 의존 관계만으로는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물리적 기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추상적 인공물은 여럿일 수 있으므로,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단일한 대상을 특정하는 것에 실패한다.

토마슨이 제시하는 확장된 인과적 모델은 일반적 추상적 인공물에 대한 지칭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우선 허구적 캐릭터가 아닌 다른 추상적 인공물에 대한 지칭 사례를 검토해보자. 가령 토마슨의 지시체-결정 방식에 따르면 누군가는 자신이 발 딛고 있는 땅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령 그 땅을 보는 경우), 그것과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놓인 추상적 대상을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추상적 인공물들을 여럿일 수 있다. 가령 그 땅이 한 부서의 물리적 기반이자, 한 학교의 물리적 기반이며, 또 한 국가의 물리적 기반이라고 가정해보자. 부서, 학교, 국가 등의 추상적 인공물들은 모두 해당 물리적 기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이름 사용자가 이 추상적 대상들 중 어느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존재론적 의존 관계는 단일한 명명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덜 세분화된 연결 관계이다.

허구적 캐릭터의 지칭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허구적 캐릭터는 허구 작품 내 등장한 특정 이름 표현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그런데 허구 작품 내 등장한 이름 표현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추상적 대상에 오직 허구적 캐릭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해당 작품이 표현하는 허구 이야기 역시 그러한 물리적 기반에 의존하는 추상적 인공물이며, 또 해당 작품을 집필한 작가의 경력 역시 (만약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물리적 기반에 의존한다. 이처럼 허구 내 등장한 이름 표현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추상적 인공물들은 여럿이므로, 적절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특정 물리적 기반과 일대일 대응 관계를 맺고 있는 추상적 인공물을 특정하기 어렵다.

정리하자면 토마슨이 제시하는 허구 내 명명식은 기존 명명식에게 부과되었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실패한다. 명명식의 주요 기능은 한 이

름 표현과 명명 대상을 연결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성공적인 명명식이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일한 명명 대상을 특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존재론적 의존 관계는 단일한 대상을 특정하기에는 지나치게 덜 세분화된 연결 관계이다. 따라서 토마슨이 기존의 명명식을 대체하여 제시하는 허구 내 명명식은 명명식에 부과된 핵심 기능인 단일한 대상을 특정하는 것에 실패한다.

토마슨 역시 지시체-결정에 관한 애매성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름 사용에 있어서 발화 맥락 및 이름 사용자의 의도에 유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8] 이러한 점을 발전시켜서 필자의 비판을 반박하는 보다 세련된 입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29] 개선된 입장에 따르면 토마슨이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존재론적 의존 관계뿐만 아니라, 이름 사용자가 제시하는 지시체의 종(kind)에 관한 믿음 역시 한 이름의 지시체-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가령 코난 도일이 이름 표현 'Holmes'를 허구 내에 문자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그렇게 사용된 이름을 통해서 이름 사용자가 허구적 캐릭터라는 특정 종을 지칭하고자 의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그 이름 표현의 지시체는 문자적으로 사용된 이름 표현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시체의 종에 대한 명명자의 믿음도 만족하는 대상을 지칭한다.

개선된 입장의 두 가지 논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개선된 입장은 토마슨이 암묵적으로 전제한 바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주장일 수 있다. 토마슨이 허구 내 명명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과 동등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명명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보기로 보여줄 때, 그녀가 지시체의 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문헌학적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그녀는 허구 내 명명식이 대강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명명식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N'이라 불리우는 바로 이 단어에 기반하는 *그 캐릭터*를 특정한다. (Thomasson 1998: 48, 49) 비록 토마슨이 명명식에서의 지시체 특정에 있어서 이름 사용자의 종에 관한 의도가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녀는 지시체의 종에 관한 명명자의

28) Thomasson 1999: 52-53.

29) 한성일 교수가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본고를 한층 더 깊은 논의로 이끌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의도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그녀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와 독립적으로, 지시체의 종에 관한 제한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경우, 필자가 제시하는 지시체의 애매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제시된 입장은 앞서 제시된 지시체의 종에 관한 애매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된 입장 역시 두 가지 사소한 문제들과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비교적 사소한 두 문제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우선 이름 사용자가 지시체의 종에 대한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의도의 내용이 얼마나 자세히 제시되어야 하는지 애매하다. 두 번째로 지시체의 종에 대한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토마슨이 제시하는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하는 것에는 실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입장은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주장하는 토마슨의 입장에 대한 옹호로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입장이 제시하고 있는 두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토마슨이 개입하고 있는 대상인 추상적 인공물에 대한 특정에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시체의 종에 대한 명명자의 일반적인 의도는 토마슨이 개입하고 있는 대상의 종을 올바르게 포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에 대한 명명자의 의도가 토마슨이 개입하고 있는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허구적 이름의 명명자들은 지시체의 종을 추상적 인공물로 의도해야 한다. 그러나 전형적인 명명식 상황에서 명명자들(가령 작가들)은 자신이 특정 이름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허구적 인물로 착각한다. 가령 코난 도일의 경우 자신이 도입한 이름 'Holmes'의 지시체가 추상적 인공물 또는 허구적 캐릭터 종이 아니라, 인간 종 또는 허구적 인간 종에 속할 것임을 의도할 것이다. 이처럼 일상적 상황에서 명명자는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로 토마슨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것의 종과 다른 종을 지칭하고자 의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명명자가 보유한 지시체의 종에 관한 의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토마슨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특정에는 실패한다.

앞선 두 문제는 실제 명명식에서 드러나는 현실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호소하여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하는 경우, 지시체 종의 애매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단일 종 내에서의 애매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어떻게 허구 작품 내 이름의 문자적 사용이 특정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자. 한 허구적 캐릭터는 허구 내에 사용된 특정 이름 표현에 유적인 의존 관계를 맺는다. 왜냐하면 해당 이름 표현이 소멸되더라도, 다른 이름 표현(가령 다음 페이지 또는 다른 작품에 쓰인 이름 표현 등) 또는 홈즈에 관한 다른 묘사들이 남아있는 한, 허구적 캐릭터 홈즈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의존 관계는 역사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은 관계이다. 왜냐하면 지지자인 허구 작품 내 특정 이름 표현이 의존자인 허구적 캐릭터보다 나중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이지 않으며, 또 허구 작품 내 특정 이름 표현이 소멸되더라도 허구적 캐릭터는 소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지도 않다.

그런데 유형적이기만 한 의존 관계는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하기에는 지나치게 느슨한 관계이다. 왜냐하면 해당 이름 표현에 유적인 의존 관계를 맺는 허구적 캐릭터는 여럿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코난 도일의 홈즈에 대한 허구 내 명명식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는 'Holmes'라는 이름 표현을 『주홍색 연구』의 초고에 새겨넣고, 해당 이름 표현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한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하기를 의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어떻게 이 이름 표현이 허구적 캐릭터 왓슨이 아니라 허구적 캐릭터 홈즈가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물리적 기반일 수 있는가? 이름 표현 'Holmes'가 허구적 캐릭터 홈즈와 오직 유형적일 뿐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동일한 관계가 허구적 캐릭터 왓슨과도 맺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름 표현 'Holmes'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가령 작가의 창조 의도에 의해) 여전히 왓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례를 통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토마슨이 제시하고 있는 허구적 캐릭터와 허구 내 이름 표현의 문자적 사용 사이의 존재론적 의존 관계가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 지을 수 있을 만큼 세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허구 내 명명식에서 존재론적 의존 관계는 허구 내 이름 표현 'Holmes'가 홈즈의 물리적 기반인지 아니면, 왓슨의 물리적 기반인지를 결정짓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정 이름 표현과 허구적 캐릭터 사이의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덧붙여 지시체의 종에 관한 의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름 'Holmes'의 허구 내 문자적 사용이 허구적 캐릭터 홈즈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구적 캐릭터 왓슨을 지칭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정리하자면, 지시체의 종에 관한 명명자의 의도에 따라 허구 작품 내 등장한 이름 표현이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한다는 점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허구 내 명명식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허구적 캐릭터들은 여럿일 수 있다. 즉 개선된 입장에서는 이름 사용자의 종에 대한 의도를 고려함에 따라 지시체의 종 간(inter-kind) 애매성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단일 종 내(intra-kind)의 애매성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허구 내 명명식에서 허구 작품 내 이름 표현과 허구적 캐릭터 사이의 존재론적 의존 관계가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할 정도로 충분히 정밀하지 못하다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허구적 이름에 대한 토마슨의 지시체-결정에 관한 주장 및 그러한 주장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마슨은 기존의 지시체-결정 모델의 주요 주장들을 계승하면서도, 그러한 주장들을 적절히 확장하여 기존의 지시체-결정 모델이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였던 추상적 대상에 대한 지칭에 관하여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다만 확장된 인과적 모델이 호소하는 존재론적 의존 관계는 단일한 지시체를 특정하기에는 지나치게 뭉툭한 관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지시체 특정 방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허구적 이름의 지시세-결정 및 공지칭 조건에 관한 필자의 주장들을 살펴보자.

4.3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및 공지칭 조건

허구적 이름 사용 역사의 두 단계들

필자는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토마슨, 새먼의 이해와 지시체-결정에 관한 인과적 모델을 바탕으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방식 및 허구적 이름들의 공지칭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방식부터 살펴보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자는 한 허구적 이름의 역사를 두 단계들로 구분할 것이다.

(가) [도입] 최초의 명명식에 따른 허구적 이름의 도입
(나) [전파] 최초의 명명식 이후에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에 의한

한 이름의 전파

왜 한 이름의 사용 역사를 두 단계들(최초의 이름 사용과 후속하는 이름 사용)로 분리시키는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이름의 경우, 두 단계들은 단일한 연결 관계(인과적 연결)에 의해 주로 설명되었다. 반면 앞서 살펴보았던 토마슨은 두 단계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관계들을 제시한다. 토마슨은 명명식에서 등장한 허구적 이름이 그것의 지시체와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의해서 연결되는 반면, 후속하는 이름 사용들에서 한 허구적 이름의 전파는 인과-의도적 연결에 의해 지속됨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필자의 주장은 어떠한가? 필자 역시 토마슨과 마찬가지로 허구적 이름 역사의 두 단계들이 서로 이질적인 관계들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반면 토마슨의 주장과 갖는 차이점은 필자의 경우 허구적 이름의 도입 단계에서 토마슨이 새롭게 제시한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적 만족 관계에 의해서 명명 대상인 허구적 캐릭터의 특정이 설명된다는 점이다.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최초의 명명식에서 도입된 이름의 지시체는 이름 사용자가 제시하는 기술구들의 만족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반면 그러한 명명식이 발생하고 난 이후 해당 이름이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에게 전파되는 상황에서는,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가 해당 이름에 결부시킨 기술구가 허구적 이름의 전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필자는 허구적 이름의 사용 역사의 두 단계들이 서로 이질적인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후 필자의 입장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두 단계들에 대한 설명이 각각 제시될 것이다. 먼저 두 단계들의 설명에서 어떤 내용들이 제시될 것인지를 대강 훑어보자; 우선 (가)는 최초의 명명식이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도입 단계에서는 명명식 상황에서 도입된 이름이 어떻게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이름은 작가에 의해서 도입되므로, 일단 작가가 발생시키는 명명식에서 어떻게 한 이름 표현이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특수한 형식의 기술적 만족 관계에 호소함으로써, 토마슨의 확장된 인과적 모델 하에서 단일한 명명 대상을 특정하는 것에 실패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명명식 이후의 후속하는 이름 사용 상황을 다루고 있다.

전파 단계에서는 명명식에 의해서 도입된 한 이름이 어떻게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검토하면서 필자가 제안하는 허구적 이름의 전파 조건이 어떻게 2장에서 제시되었던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공)지칭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정리하자면, 필자는 최초의 명명식에서 도입된 허구적 이름은 그것의 지시체와 기술적 만족 관계에 의해서 연결되는 반면, 후속하는 이름 사용들에서 한 허구적 이름의 전파는 (토마슨의 주장과 약간 다른) 인과-의도적* 연결에 의해 지속됨을 주장한다.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자.

허구적 이름의 도입과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 특정

(가)에 관한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최초의 명명식에 의해 도입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우선 토마슨이 기존의 명명식이 성립하는 방식을 배제한 이유를 다시 살펴보자. 기존의 명명식에 호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존에 명명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두 방식들 모두 추상적 인공물인 허구적 캐릭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허구적 캐릭터는 추상적 인공물이므로, 그것을 대상-관계적 의도를 통해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술적 의도는 어떠한가? 토마슨은 허구 내 귀속된 속성들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명자(가령 작가)가 지칭하기를 의도한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이름의 지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기술적 의도에 호소하는 노선을 배제한다.

그렇다면 명명식에서 동원될 수 있는 두 지시체 특정 의도들(대상-관계적 의도, 기술적 의도) 중 어떤 것도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를 특정하는 것에 실패하는가? 그렇지 않다.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가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허구적 캐릭터라는 점, 그리고 허구적 캐릭터가 만족하는 기술구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기술적 의도에 의한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의 특정이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필자는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에서 명명자가 제시하는 특수한 형태의 기술구들의 만족에 의해서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기술적 의도를 통해 어떻게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특정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한 가지 예비적인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허구적 캐릭터의 존재에 대한 토마슨의 조건들을 고려해보면, 허구 작품의 완성 이전 단계에서도 허구적 캐릭터가 존재할 수 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토마슨은 허구적 캐릭터가 작가의 창조 활동에 고정적이고 역사적으로 의존하고, 또 허구 작품에 유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존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허구적 캐릭터가 허구 작품이 완성되기 이전에 허구 작품의 구상 단계에서도 창조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한 작가가 허구적 캐릭터를 창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으며, 그 의도에 따라 그러한 대상을 허구 내에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할지 상상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이 수행되었다는 점만으로도 허구적 캐릭터가 창조된다. 가령 코난 도일이 새로운 허구적 캐릭터를 창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도에 따라 그것이 인간임, 사립-탐정임 등의 속성들을 만족한다고 가장하는 경우, 허구적 캐릭터는 존재한다.[30]

허구 작품의 구상 단계에서도 허구적 캐릭터의 창조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최초의 명명식은 허구 작품의 완성보다 더 이른 시점, 특히 작가가 허구를 구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허구 작품의 완성 전까지 허구적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허구적 이름이 도입되는 명명식 상황에서는 명명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반면 허구 작품 완성 이전에 허구적 캐릭터의 존재를 허용한다면, 작품 완성 전에 발생하는 허구적 이

30) 제시된 허구적 캐릭터의 창조 상황은 토마슨의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의존 관계들을 훼손하지 않는다. 우선 작가의 창조 활동은 작가의 창조 의도에 고정적 역사적 의존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이며, 또 작가의 창조 활동은 그 의도에 따른 상상 행위에 유적이고 지속적인 의존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작가가 특정 허구적 캐릭터를 창조하려는 창조 의도에 따라 특수한 상상 행위를 수행한다면, 설령 그것이 출력되거나 출판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상상 행위에 의한 결과물로서 특정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문학 작품은 그러한 기억에 유적이고 역사적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토마슨 역시 한 사람의 기억이 남아있는 한, 허구 작품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므로(Thomasson 1999: 11-12), 문자화된 작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기억이 남아있는 한 허구적 캐릭터의 유적이고 지속적인 의존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물론 토마슨은 이러한 창조 조건이 지나치게 손쉬운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창조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 조건이 의존적 대상으로서 허구적 캐릭터를 이해하는 토마슨의 주요 이해를 훼손하지는 않으며, 나아가 그녀의 주장을 적절히 확장하는 경우 작품 완성 이전의 창조가 충분히 옹호될 수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름의 명명식 상황에서도 명명 대상인 허구적 캐릭터를 제시할 수 있다.[31)]

이제 본격적으로 허구적 명명식에서 어떻게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자. 필자는 명명자가 발생시키는 기술적 의도에 호소하여, 명명 대상인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특정에 성공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그 기술적 의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새로운 허구적 캐릭터를 도입하려는 상황에서 작가는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허구적 대상을 창조하는 상황에서 작가는 자신이 어떤 대상을 존재한다고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믿으며, 또 그 대상이 특정 속성들을 만족한다고 가장하고 있음을 믿는다. 이에 따라 허구적 이름의 전형적인 명명식 상황에서 명명자인 작가는 자신이 제시하는 속성들을 단적으로 만족하는 대상을 특정하려는 기술적 의도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작가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허구 내에서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장된* 대상을 특정하려는 기술적 의도를 갖는다. 가령 코난 도일이 허구 작품의 완성 이전에 홈즈에 대한 명명식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는 허구적 인물로서 홈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코난 도일은 이름 'Holmes'를 도입하면서 사람임, 사립-탐정임과 같은 속성들을 단적으로 만족하는 대상에 대한 명명식을 발생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명자인 코난 도일의 믿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그는 허구 내에서 제시된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만족한다고 *가장되는* 것에 대한 명명식을 발생시키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Holmes'에 대한 명명식에서 명명자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기술적 의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 허구 내에서 사람이면서, 사립 탐정이면서, 베이커가 221번지 B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된 것을 특정하고자 의도한다.

그런데 추상적 인공물로서 허구적 캐릭터는 위와 같은 형식의 기술적 의도를 실제로 만족한다. 가령 추상적 인공물인 홈즈는 기술적 의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속성들 중 하나인 특정-허구-내에서-사립-탐정으로-가장됨이라는 속성을 실제로 만족한다. 그 허구적 캐릭터는 기술적 의도에 포함된 이

31) 이러한 우려와 달리 새먼(Salmon 1998) 및 세인스버리(Sainsbury 2005)의 경우 미래적 존재자에 대한 명명식을 허용한다. 이러한 주장은 필자에서 환영할만 한 것이다. 다만, 허구 작품의 완성 이전에 허구적 캐릭터의 창조를 허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허구 작품의 완성 이전에도 허구적 캐릭터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해보자.

러한 특수한 형식의 속성들을 실제로 만족하므로, 명명자는 그러한 속성들의 만족에 의해서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명명식에서 작가가 발생시키는 기술적 의도는 단순히 허구 내 제시된 속성들을 만족하는 대상을 특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특정 허구 내에서 제시된 속성들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장되는 대상을 특정하려는 의도이다. 추상적 허구적 캐릭터는 그러한 기술적 의도의 내용을 만족하므로 명명식에 의한 허구적 이름의 도입 단계에서 특수한 기술적 만족 관계에 의해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할 수 있다.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에서 위와 같은 형식의 기술적 의도에 의해서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반론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 반론은 대상-관계적 의도 없이 오직 기술적 의도만으로 명명 대상을 특정하는 경우, 그렇게 발생한 도입된 이름이 에반스가 제시하였던 기술적 이름(descriptive name)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기술적 의도만으로 발생한 이름 표현은 모두 에반스가 말하는 기술적 이름(descriptive name)인가? 세인스버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한 이름이 대상-관계적 의도 없이 오직 기술적 의도에 의해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에반스가 말하는 기술적 이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Sainsbury 2005: 109-110)

만약 기술적 의도에 의해서 도입된 허구적 이름이 에반스가 말하는 기술적 이름이라면, 허구적 이름의 사용자는 지시체가 그러한 기술구에 포함된 내용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또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를 검토한다면, 명명자는 허구적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명명식에 포함된 기술적 의도의 일부 내용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을 합리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가령 코난 도일이 홈즈에 대한 명명식에서 허구 내에서 인간임, 사립-탐정임 등을 가장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특정하려는 의도를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작품을 집필하던 도중, 코난 도일은 홈즈를 어떻게 묘사하는 것이 더 좋을지 고민하였다. 코난 도일은 앞선 명명식에서의 기술적 의도의 일부 내용과 달리, 홈즈가 사립 탐정이 아니라 영국광역경찰청 소속의 형사로 묘사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이러한 고민을 수행하면서 코난 도일은 기존과 다른 허구적 대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코난 도일은 홈즈가 허구 내에서 사립 탐정으로 묘사되지 않

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는다. 이는 기술적 의도에 의해 도입된 허구적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그 기술적 의도의 내용으로 포함된 한정기술구의 특정 내용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을 합리적으로 갖는 사례이다. 따라서 허구적 이름 '홈즈'가 대상-관계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 의도에 의해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구적 이름 '홈즈'가 에반스가 말하는 기술적 이름인 것은 아니다.[32]

두 번째 반론을 살펴보자. 두 번째 반론의 핵심 요지는 일상적인 명명식 상황에서 명명자가 명명 대상인 허구적 대상에 대해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특수한 기술적 의도를 갖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코난 도일이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 상상하는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경우 코난 도일은 홈즈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사람으로 가장된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코난 도일은 마치 자신이 홈즈를 실제로 관찰하고 있다는 듯이 그에 관한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명명식 상황에서도 작가는 허구에서 제시된 이러저러한 묘사들을 단적으로 만족하는 대상에 대해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명명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명명자가 일상적으로 가질 법한 기술적 의도의 내용을 검토해본다면, 명명자는 기술적 의도의 내용으로 속성들을 만족한다고 *가장하는* 것을 특정하고자 의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허구 내에 묘사된 속성들을 *단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특정하고자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해서 명명식의 일상적 상황에서 명명자는 허구적 인물에 허구적 이름을 붙이고자 의도하지, 허구적 캐릭터에 허구적 이름을 붙이고자 의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가 앞서 제시한 특수한 형태의 기술적 의도는 허구적 대상에 이름을 붙일 때 명명자가 갖는 기술적 의도의 내용을 왜곡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반론의 주장과 필자의 주장 사이의 차이를 보다 선명히 대조시켜보자. 어떤 내용이 가장 맥락 하에 있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기를 도입하자; $\{^{P}\ C\ \}^{P}$. 괄호($\{^{P}\ \}^{P}$)는 어떤 내용(C)이 가장 하에 놓여 있음

32) 반실재론의 노선을 취하는 에버렛 역시, 지각과 같이 직접적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이름 뿐만 아니라, "지시체-고정 기술구(reference-fixing description)"에 의해서 도입된 이름 역시, 기술적 이름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설령 기술구에 의해 도입된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의 지시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지시체가 이름의 도입 당시 활용되었던 기술구를 더 이상 만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이름의 지시체는 변화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Everett 2000: 46)

을 나타낸다. 가령 코난 도일이 홈즈를 사립 탐정이라고 상상하는 상황에서, 그가 상상한 내용은 가장 하에 있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I}$홈즈는 사립 탐정이다$\}^{P}$. 덧붙여 ϕ를 한 허구 내에서 어떤 대상이 유일하게 만족하는 속성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를 바탕으로 명명식에서 발생하는 이름 사용자의 의도에 대한 두 입장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명명자의 의도에 대한 반론자의 이해]
$\{^{P}$ ϕ를 만족하는 허구적 인물 o에 대해, 'N'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의도한다 $\}^{P}$

[명명자의 의도에 대한 필자의 이해]
$\{^{P}$ ϕ를 만족하는 $\}^{P}$ 허구적 캐릭터 o에 대해, 'N'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의도한다.

두 입장의 차이를 정리해보자. 제시된 반론에 따르면,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은 가장 밖이 아니라 가장 안에서 발생한다. 반면 필자는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은 가장 밖에 놓여 있는 것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두 입장은 허구적 이름의 명명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반론자는 명명 대상을 허구 내 묘사된 속성들을 실제로 만족하는 허구적 인물을 명명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필자는 명명 대상을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추상적 인공물인 허구적 캐릭터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러한 반론에 대해 필자는 반론자가 명명자의 의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제시하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서 필자는 명명자가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을 발생시킨 직후 그 사람의 이름 사용을 살펴보았을 때, 반론자의 기대와 달리 명명식이 가장 하에 놓여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령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6 나는 유정에게 단일한 허구적 대상에 대해 상상해볼 것을 요구했다. 유정은 그러한 요구에 응하여 화성에 거주하는 고도의 지능을 가진 외계인을 상상하였다. 나는 그것에 이름을 붙

여줄 것을 그녀에게 요구하였다. 그러한 요구에 응하여 그녀는 자신이 상상한 것에 '마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후에 유정은 자신이 상상한 것에 대해 나에게 설명해주었다. 유정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마리가 목성에 사느냐고 물었으며, 그녀는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또 나는 그것(동일한 것)이 허구적 대상이냐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그녀는 그것이 허구적 대상이라고 답변하였다.

위 가상적 사례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허구적 이름의 명명자가 허구적 이름을 사용하는 실제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명명식 상황에서 명명자가 갖는 기술적 의도의 내용이 반론자의 예측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정의 첫 번째 답변에서 알 수 있듯 명명자는 자신이 명명한 대상이 가장 하에서 제시된 묘사들을 만족하는 대상이라고 간주한다. 반론자는 유정의 첫 번째 답변만을 고려하여 명명 대상을 허구 내 묘사들을 단적으로 만족하는 허구적 인물로 간주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유정의 두 번째 답변이다. 명명자인 유정의 두 번째 답변은 허구적 이름의 일상적 사용이 반론자의 기대와 다르다는 점을 나타낸다. 첫 번째 질문에서 물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 허구적 대상이냐고 물었을 때, 유정은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답변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반론자의 주장대로 '마리'라는 이름이 가장 하에서 허구적 인물에 대해 명명된 것이라면, 그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가장 하에서 외계인에 대한 이름일 뿐, 가장 하에서 허구적 대상에 대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리는 허구 속 허구의 등장인물이 아니므로, 그녀는 그것이 허구적 대상임을 부정했어야 한다.[33] 그런데 반론자의 기대와 달리 그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허구적 대상임을 긍정한다. 만약 반론자의 주장대로 '마리'라는 이름의 명명식이 허구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유정의 두 번째 답변은 잘못된 것이다.

---

33) 반론자의 입장에서 유정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올바른 것으로 취급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만약 유정이 크립키의 곤자고(Gonzago) 사례(Kripke 2013: 72-73)처럼, 허구 내에 또 다른 허구를 발생시키고, 허구적 허구적 대상(fictional fictional object)에 대해서 '마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면, 마리가 허구적 대상이라는 그녀의 답변은 올바르다. 그러나 위 사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가상의 사례에서 유정은 단순히 홑겹의 허구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허구적 이름의 실제 사용 방식을 고려해보았을 때, 허구적 이름에 대한 명명식이 가장 하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은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일견 한 허구적 대상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명명자는 자신이 귀속시킨 속성들을 만족하는 허구적 인물에 대해 이름을 붙이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명명자가 명명식에 따라 발생한 이름의 실제 사용 사례들을 검토해본다면, 이름 사용자가 그러한 속성들을 단적으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자 의도하는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허구적 이름의 실제 사용에 관한 관찰에 따르면,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은 가장 맥락 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구적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려 한다는 잘못된 주장은 명명식에서 제시되는 명명자의 기술적 의도를 보고할 때 가장 범위를 혼동한 것에서 비롯된다.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에서 명명자는 자신이 이러저러한 속성을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 이름을 붙였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대상에게 귀속시키는 속성들이 가장 하에 있는 것일 뿐, 명명식 자체가 가장 하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허구적 이름의 실제 사용은 명명자가 갖는 진정한 기술적 의도의 내용이, 단순히 그러한 속성들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속성을 만족한다고 가장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려는 것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은 가장 안이 아니라, 가장 밖에서 발생한다.

반론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명명식은 허구 내에서 한 등장인물이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명명식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설명할 뿐 명명자의 실제 명명식을 설명하지 못한다. 가령 허구 내 등장인물인 왓슨이 허구 내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화하였다고 가정해보자. "베이커가 221호 B번지에 사는 탁월한 추리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을 '홈즈'라고 부를 것이다." 만약 허구 내에 이러한 묘사가 등장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허구 내 명명식은 가장 하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가장 하에서의 명명식은 작가가 실제로 도입하는 명명식과 다르다.

위 사례에 대해 필자의 주장과 다른 분석을 제시할 수도 있다. 유정의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이해로서 크립키가 제시한 허구적 이름의 애매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에서 사용된 '마리'와 두 번째 질문에서 사용된 대용어('그것')는 서로 지시체가 다르다. 왜냐하면 가장 하에서 사용된 허구적 이름은 지칭에 실패하는 반면, 가장

밖에서 사용된 것은 지칭에 성공하기 때문이다. 가령 유정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하에서 사용된 이름인 '마리'는 지칭에 실패하는 빈 이름이지만, 가장 밖에서 사용된 대용어는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에 성공한다.

그런데 두 이름들의 지시체가 서로 다르다는 답변은 이름 사용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족스럽다. 유정의 대용어 사용을 검토하였을 때, 그녀가 이전과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그녀는 대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자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시된 대안은 유정이 이전과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자 의도하였음을 고려하지 않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허구적 이름의 도입 상황에서 기술적 의도에 호소함으로써 어떻게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특정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에서 명명 대상의 특정은 기술적 의도에 의해서 발생한다. 허구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명명자는 단순히 특정 속성들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속성들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장된 것을 특정하고자 의도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름 사용자의 실제 이름 방식(유정의 '마리' 사례)에 의해서 지지된다. 그러한 내용을 가진 기술적 의도를 만족하는 허구적 캐릭터는 존재하므로, 명명자는 기술적 만족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자신이 명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허구적 캐릭터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토마슨은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의도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허구적 인물과 대비되는 허구적 캐릭터가 허구 내 묘사된 속성들을 단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한다고 가장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기술적 의도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필자가 제시하는 특수한 형태의 기술적 의도는 토마슨이 제시하는 존재론적 의존 관계보다 더 세밀하므로, 명명 대상인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하는 것에 성공한다.

허구적 이름의 전파

허구적 이름의 최초의 명명식에서 명명자는 기술적 의도를 통해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하는 것에 성공하고, 그렇게 연결된 대상을 지시체로

설정함으로써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에 성공한다. 그렇다면 명명식에 의해 도입된 허구적 이름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제 한 허구적 이름의 전파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허구적 이름의 도입이 기술적 만족 관계에 의해서 설명된 것과 대조적으로, 도입 이후 후속하는 이름 사용들에 의한 허구적 이름의 전파는 허구 내에 제시된 묘사들과 독립적이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이름 사용처럼)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가 지시체에 관한 허구 내 묘사들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또 그 대상에 대해 잘못된 묘사들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대상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홈즈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코난 도일의 단편 소설 『주홍색 연구』 몇 장만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름 '홈즈'를 사용해서 홈즈에 대한 지칭에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홈즈에 대한 어린이 동화만을 읽은 사람이 홈즈에 관해 원작과 다른 속성들을 결부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이 동화가 기존 허구적 캐릭터 홈즈의 편입에 성공하는 한, 그들은 이름 '홈즈'를 사용함으로써 허구적 캐릭터 홈즈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이 한 허구적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속성들을 결부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칭에 성공하는 이유는, 해당 이름 사용의 인과-의도적 연결에 따라 단일한 명명식에 연결되고, 나아가 그 명명식이 기술적 만족 관계에 의해서 특정 허구적 캐릭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가령 허구적 이름 'Holmes'의 전파 사례를 생각해보자. 코난 도일은 이름 'Holmes'를 직접 발화하거나 또는 작품에 기술함으로써 해당 이름을 전파한다. 이때 그러한 이름을 듣거나 본 사람이 동일한 이름 표현을 사용해서 이전 사용이 지칭한 대상과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자 의도한다면, 이 경우 이전 이름 사용에 대한 인과-의도적 연결이 발생한다. 이러한 두 요소들의 만족에 의해서 단일한 허구적 이름은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허구적 이름의 지치세-결정과 공지칭 조건

지금까지 한 이름의 전파 방식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허구적 이름의 전파에 관한 조건을 바탕으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이름의 전파와 달리 지시체-결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

한 지칭의 성공을 위해서 이름 표현의 구문론적 동일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누군가가 홈즈에 대해서 실컷 설명해주었을 때, 그러한 설명을 들은 다른 이름 사용자가 임의로 "나는 그것을 '홈즈' 대신 '스미스'라고 부르겠다."라고 선언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가 홈즈를 '스미스'라고 부른다고 해서 기존과 다른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지칭 차용 의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칭 차용 의도는 자신이 전달받은 이름 표현과 동일한 이름 표현을 사용하여 이전과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지칭 차용 의도는 두 가지 반복 의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의도는 이전과 동일한 이름 표현을 사용하려는 구문론적 반복 의도이고, 두 번째 의도는 이전에 사용된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을 지칭하려는 의미론적 반복 의도이다. 그런데 동일한 이름 표현의 사용은 한 이름의 전파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지시체-결정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름의 지치세-결정에 있어서는 이전 이름 사용자가 지칭적으로 사용한 이름[34]을 인과적으로 전달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어떤 이름 표현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전 이름 사용자가 지칭하였던 대상을 동일하게 지칭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때 후자의 의도를 '지시체 보존 의도'라고 부르자. 또 이 두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이름 사용들 사이의 연결을 '인과-의도적* 연결'이라고 표기하자. 앞서 제시한 인과-의도적 연결과의 차이는 지칭 차용 의도가 지시체 보존 의도로 대체됨에 따라, 이전 이름 사용자와 동일한 이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다는 점뿐이다. 이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조건을 제시해보자.

---

34) 그런데 인과적 연결이 반드시 *이름 표현들*의 전달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이름 표현의 전달 없이도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는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자. 『주홍색 연구』의 일부분만을 읽은 한 독자를 생각해보자. 그 독자가 읽은 부분은 홈즈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었지만, 우연히도 해당 부분에는 묘사된 대상의 이름인 '홈즈'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때 이 독자는 코난 도일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읽은 묘사들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장된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이름 '스미스'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 독자는 이름 '홈즈'를 인과적으로 전달받지 못하였지만, 이름 '스미스'를 사용함으로써 홈즈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때 인과적 연결은 이름 표현들 사이의 인과적 전달뿐만 아니라, 모든 *지칭적 표현*(가령 대용어 등)의 인과적 전달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가 사용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가 사용한 허구적 이름이 허구적 캐릭터 o를 지칭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그 이름 사용의 인과-의도적* 연결을 추적하였을 때, 그 끝 지점에 허구적 캐릭터 o에 대한 최초의 이름 사용인 명명식과 연결된다.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는 최초의 명명식과 인과-의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명명식이 대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성공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 상황에서는 최초의 이름 사용자인 명명자에게는 지시체가 만족하는 정보들이 요구되었지만, 이와 달리 이름의 전파 과정에 있어서는 그 지시체에 대한 특정한 정보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은 지시체-결정에 관한 인과적 모델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통한 지칭의 외재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지시체를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지시체에 관해 제시하는 기술구들은 지칭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을 맺지 않는다. 오히려 지칭 성공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이전 이름 사용에 대한 지시체 보존 의도이다. 그들은 이전 이름 사용자가 지칭한 대상을 동일하게 지칭하려는 의도를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시체를 특정하는 과제를 최초의 명명식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떠넘길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이름의 지시체를 특정하는 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에 관한 설명을 통합적으로 제시해보자. 우선 허구적 이름의 도입 단계에서는 기술적 만족 관계에 따라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의 특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명명식에 따라 도입된 허구적 이름의 전파 단계에서는 인과-의도적* 관계에 따라 개별적 이름 사용들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한 두 이질적인 관계들을 종합하면, 한 허구적 이름이 어떻게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한 이름 사용자가 사용한 허구적 이름이 허구적 캐릭터 o를 지칭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그 이름 사용의 인과-의도적* 연결을 추적하였을 때, 그 끝 지점에 놓인 최초의 명명식에서 기술적 만족 관계에 의해 연결된 허구적 캐릭터 o가 존재한다.

정리하자면, 한 허구적 이름은 그것과 인과-의도적*으로 연결된 최초의 명명식에서 기술적 만족 관계를 맺고 있는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한다. 이 두 이질적 관계들의 연결에 의해서 추상적 인공물인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이 설명될 수 있다.

이제 허구적 이름들의 공지칭(co-refer)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공지칭(co-refer)은 복수의 이름들이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에 성공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구체적 대상에 대한 이름과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하에서도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가 존재한다. 따라서 허구적 이름들의 공지칭은 지칭적으로 사용된 복수의 이름들이 동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지칭 조건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허구적 캐릭터의 동일성 조건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허구적 캐릭터의 동일성 조건을 알기 전까지 허구적 이름들의 공지칭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허구적 캐릭터들의 동일성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제시 없이도,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창조주의의 주장들에 따라 허구적 캐릭터의 전달에 있어서 제약들이 발생한다. 만약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의 전달에 관한 제한을 받아들인다면, 허구적 캐릭터의 동일성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없이도 허구적 이름들의 공지칭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허구적 캐릭터의 전달에 있어서 그 제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구체적인 대상의 경우 이름 사용자들의 이름 사용 역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지칭에 성공할 수 있다. 가령 반도체 회사의 경영자인 리사 수를 처음 본 사람이 그녀를 지칭하기 위해서 임의로 '캐롤라인'라는 이름을 도입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경우 '캐롤라인'과 '리사 수'는 동일한 지시체를 지칭하므로, 공지칭에 성공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공지칭의 경우, 두 이름 사용자들은 독립적으로 대상을 지각할 수 있다. 따

라서 두 이름 사용자들 사이에 이름 전달 역사가 성립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자가 사용한 이름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하다면, 공지칭에 성공한다.

그런데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공지칭은 인과적으로 단절된 이름 사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이는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창조주의의 특수한 이해 때문이다. 우선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캐릭터는 추상적 대상이므로, 구체적인 대상과 달리 두 이름 사용자들이 독립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덧붙여 창조주의의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주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한 사람이 임의로 창조한 허구적 캐릭터가 다른 사람이 독립적으로 창조한 허구적 캐릭터와 동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토마슨의 주장처럼 한 허구적 캐릭터는 그것을 만든 한 작가의 특정한 창조 활동에 고정적이고 역사적인 의존 관계를 맺는다. 이에 따라 특정 작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점은 한 허구적 캐릭터의 기원이자 본질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허구적 캐릭터들이 허구 내 묘사들에 있어서 전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두 작가들이 각각을 독립적으로 창조한 경우, 두 허구적 캐릭터들은 동일하지 않다. 두 허구적 캐릭터들은 각각에 귀속된 속성들에 있어서 우연한 일치를 보이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특정 작가가 창조해낸 바로 그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허구적 이름 발화를 직접 접하거나, 그 작가가 집필한 허구 작품을 직접 감상하거나, 그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캐릭터를 편입한 소설을 감상하거나, 또는 그러한 허구 작품들의 감상으로부터 발생한 허구적 이름 사용들이 인과-의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 외에 특정 작가가 창조해낸 바로 그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에 성공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공지칭은 오직 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명명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름 전달 연쇄에 인과-의도적*으로 연결된 이름 사용들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허구적 캐릭터의 전달에 관한 이러한 제한 조건을 바탕으로 허구적 캐릭터의 동일성 조건에 대한 제시 없이도 공지칭에 관한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지칭적으로 사용된 이름들이 허구적 캐릭터 o에 대한 공지칭에 성

공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지칭적으로 사용된 각 이름 사용들의 인과-의도적* 연결을 추적하였을 때, 각각의 이름 사용들이 허구적 캐릭터 o에 대한 명명식과 연결되어 있다.

제시된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 조건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공지칭 조건이 2장에서 비판하였던 프렌드의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에 관한 주장들과 달리, 허구 내 묘사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렌드는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이 공지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특정 허구적 대상에 관해 제시한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필자의 공지칭 조건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이 공지칭에 성공하기 위해서 허구 내 귀속된 속성에 대한 앎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프렌드의 입장과 달리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이 공지칭에 성공하기 위해 특정한 인지적 내용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가 이전 이름 사용자가 특정 이름을 통해 지칭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것을 지칭하려는 의도를 갖는 경우, 후속하는 이름 사용은 공지칭에 성공하는 이름 사용들의 연쇄에 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연쇄의 출발 지점에는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명명식과 연결될 것이므로, 그러한 연결 관계에 놓인 이름 사용들은 특정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에 성공한다. 이러한 공지칭 조건은 동일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해 말하고 있으면서도,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이 자신이 지칭하는 지시체에 대해서 각기 다른 속성들을 귀속시키는 현상을 잘 설명한다.

지금까지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방식 및 공지칭 조건을 살펴보았다. 허구적 이름의 도입에 있어서 필자의 주장은 토마슨의 주장과 차이를 보인다. 토마슨은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호소하여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성긴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하는 문제를 갖는다. 반면 필자의 주장은 토마슨의 것보다 세밀한 기술적 의도에 호소함으로써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하는 것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나아가 허구적 이름의 전파에 있어서 필자의 주장은 프렌드 입장(덧붙여 기존의 여러 입장들)과 차이를 보인다.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이 특정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허구 내 묘사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허구 내 묘사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이전 이

름 사용자가 지칭한 대상을 동일하게 지칭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허구적 이름의 역사를 두 단계들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요구되는 관계들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허구적 이름의 지칭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

제5장 반례 및 대응

필자는 기존 허구적 캐릭터의 편입 조건 및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 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반례들을 제시할 수 있다. 필자는 앞서 제시된 여러 주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반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반례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반례1: 지킬-하이드의 편입

필자는 허구적 캐릭터의 성공적인 편입과 관련하여 차용 의도의 허구 내 실현을 충분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 따라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허구 작품 내에서 서로 다른 허구적 캐릭터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존재한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7 로버트 스티븐슨은 자신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서 동일한 허구적 캐릭터 a에 관하여 '지킬'(Jekyll)이라는 이름과 '하이드'(Hyde)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작가인 준성은 로버트 스티븐슨의 지킬(Jekyll)-하이드(Hyde) 이야기를 전해 듣고 스핀-오프 작품을 집필하고자 계획한다. 다만 그는 원작과 달리, 지킬과 하이드를 서로 다른 허구적 대상들로 설정하고자 한다. 새로운 허구를 집필하면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소설 속에서 '지킬'이라는 이름으로 스티븐슨의 지킬을 가리키길 의도하였으며, 또 새로운 소설 속에서 '하이드'라는 이름을 스티븐슨의 하이드(즉, 지킬)를 가리키길 의도하였다. 덧붙여 그는 새로운 허구 작품에서 둘을 서로 다른 허구적 인물들이라고 묘사하였다. 새로운 작품 속에서 지킬은 비교적 선한 본성을 지닌 박사이지만, 하이드는 악한 본성을 가진 인물이며, 둘은 서로 협력하여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해당 사례가 필자의 입장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준성은 필자가 제시한 편입을 위한 충분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준성의 허구 내에서 지킬은 하이드와 동일한 허구적 캐릭터이다. 그런데 준성은 자신의 소설에서 둘을 서로 다른 인물들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준성의 '지킬'과 준성의 '하이드'는 성공적 편입에 따라 공지칭에 성공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허구 내 묘사에 따라 공지칭에 실패하는가? 이 사례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제시해야 하는가?

프리델(Friedell 2016) 및 이정규(Lee ms)가 제시하는 주장을 채택한다면, 위 반례에서 제시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 허구적 캐릭터에 관한 실재론자가 허구적 캐릭터가 특정 속성을 예화하는 두 방식들을 제시하였을 때, 그러한 구분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한 구분을 지지하는 한 가지 근본 동기는 허구 내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한낱 가장(pretense)에 불과한 것일 뿐, 존재하는 허구적 캐릭터의 진정한 속성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 허구 내 인물들의 동일성에 관한 묘사에 있어서도 유사한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수 있다.

특정 허구 내에서 두 인물들이 동일하다는 묘사가 등장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묘사에 의해서 해당 작품에 등장한 두 허구적 캐릭터가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설령 한 작품 내에 등장한 두 인물들이 동일하다는 묘사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각 인물들로 등장하는 허구적 캐릭터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는 허구 내 등장인물들의 수와 그러한 인물들의 배후에 놓여 있는 허구적 캐릭터들의 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허구적 캐릭터를 배우에 비유하여 설명해보자. 배우 톰 하디는 영화 <레전드>에서 두 명의 인물들(레지 크레이/로니 크레이)을 연기하였다. 그런데 톰 하디가 영화 속에서 두 인물들을 연기하였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톰 하디가 두 대상들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 사례도 살펴보자. 드라마 <대장금>에서는 아역배우 조정은이 허구적 캐릭터인 서장금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였으며, 배우 이영애가 허구적 캐릭터인 서장금의 성인 시절을 연기하였다. 이때 두 배우들이 하나의 인물을 연기하였다고 해서, 두 배우들이 동일한 개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허구적 캐릭터와 관련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가 허구 내에서 복수의 등장인물들로 제시되었다고 해서, 그 허구적 캐릭터가 둘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복수의 허구적 캐릭터들이 허구 내에서 단일한 등장인물로 제시되었다고 해서, 복수의 허구적 캐릭터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허구 내 동일성에 관한 묘사들 역시 *허구 내의 묘사*에 불과하므로, 허구 내에 동일성에 관한 묘사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허구적 캐릭터들의 동일성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에버렛(Everett 2013)이 제시하였던 허구적 대상들의 동일성에 대한 주장과 충돌한다. 가장 이론을 옹호하는 에버렛의 입장에서 허구적 대상들은 그것들이 등장하는 허구 내 묘사들이 분할하는 대로, 정확히 그만큼만 나눠진다. 이에 따라 한 허구 작품에서 허구적 대상들의 동일성은 해당 작품에서의 묘사들에 따라 결정된다.[35)]

창조주의 하에서 허구적 캐릭터들의 동일성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지는 당장 답변되기 어렵다. 다만 허구적 캐릭터의 동일성이 허구 내 묘사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프리델 및 이정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위 사례에 대한 대응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준성은 '지킬'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스티븐슨의 지킬을 지칭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2) 준성은 '하이드'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스티븐슨의 지킬을 지칭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3) 준성은 새로운 소설에서 지킬과 하이드가 서로 다른 인물들이라고 허구 내에서 묘사하였다.

위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허구적 캐릭터들의 동일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두 원리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1)과 (2)는 2장에서 제시한 기존 허구적 캐릭터의 편입에 관한 충분조건의 만족에 따른 결론이다. 그런데 만약 허구적 캐릭터들의 동일성이 허구 내 묘사들에

35) 단일한 허구 작품에서 등장하는 두 허구적 대상들 a와 b가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허구 내에서 a와 b 사이의 동일성 관계가 참인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Everett 2013: 205).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리를 받아들이면, (3)에 따라 (1) 또는 (2) 둘 중 하나의 결론이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허구 내 동일성에 관한 묘사가 허구적 캐릭터들의 동일성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준성이 자신의 작품 내에 지킬과 하이드가 서로 다르다는 묘사들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묘사는 허구 내 묘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3)은 허구적 캐릭터의 동일성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준성이 편입에 성공한 허구적 캐릭터 a를 자신의 작품에서 두 등장인물들로 묘사하였다고 해서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 a가 둘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a는 새로운 허구 내에서 두 등장인물들(지킬 및 하이드)로 제시되었을 뿐, 허구 내 묘사들에 의해서 그 허구적 캐릭터가 분할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면, 허구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또는 허구 내에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묘사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도 설명할 수 있다. 가령 베케트의 연극인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등장하는 허구적 이름 '고도(Godot)' 사례를 생각해보자. 연극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고도를 기다리지만, 해당 허구 내에서 고도가 정말로 존재하는 인물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학 평론가들은 고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해석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해석에 대해 그것이 고도에 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평론가들이 사용한 이름 '고도'는 어떻게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는가? 앞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동원한다면, 이 난해한 사례에 대해서도 매끄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작가인 베케트는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자신도 잘 모른다고 답하였으나) 적어도 특정 허구적 캐릭터를 창조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도에 따라 발생한 창조 행위에 의해서 허구적 캐릭터 고도는 존재하기 시작한다. 허구 내에서 기술된 이름 '고도'는 베케트에 의해서 창조된 허구적 캐릭터 고도를 지칭하는 것에 성공한다. 다만 고도는 존재하는지 여부가 미결정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것일 뿐이다. 이에 따라 일반 독자들 및 평론가들도 '고도'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

심지어 베케트가 자신의 연극 각본의 마지막에 "고도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추가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허구적 캐릭터는 존재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설령 그러한 묘사가 허구 내에 등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구적 캐릭터 고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그 경우 고도는 허구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 것일 뿐이다. 추가된 존재 여부에 관한 묘사 역시 *허구 내*에 묘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많은 문학 평론가들 및 일반 독자들은 존재하는 허구적 캐릭터인 고도를 지칭할 수 있다.

반례2: '폴라'와 '펠마'의 공지칭

에버렛(Everett 2013: 96)은 두 독자들이 허구 내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허구적 캐릭터에 대해 동일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를 소개한다. 에버렛의 사례가 허구적 이름을 다룬 사례는 아니므로, 에버렛의 사례를 적절히 변형하여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8* 지수와 영호는 독립적으로 연극 『햄릿』을 감상하였다. 연극에 집중하지 않았던 그들은 오필리아가 폴로니우스의 딸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지수는 극에서 등장하지도 언급되지도 않은 폴로니우스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녀에 대해 허구적 이름 '폴라'를 도입하였다. 반면 지수와 독립적으로 영호는 극에서 등장하지도 언급되지도 않은 오필리아의 어미니를 생각하면서, 그녀에 대해 허구적 이름 '폴라'를 도입하였다. 이후 그들은 각각 이름 표현들을 사용하여 허구적 대상에 대해 발화하였다. 가령 지수는 "폴라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다."라고 발화하였으며, 영호는 "펠마는 딸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다."라고 발화하였다. 이 경우 지수의 '폴라'와 영호의 '펠마'는 공지칭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폴라'와 '펠마'의 공지칭 사례는 몇 가지 특징들로 말미암아 어느 입장에서든지 해명하기 까다로운 사례이다. 이 사례의 특징들을 살펴보자. 우선

해당 작품의 감상자인 지수와 영호는 허구 내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다른 인물에 의해서 언급되지도 않은 허구적 캐릭터에 대해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 '폴라', '펠마'라는 허구적 이름들을 위한 독립적인 명명식이 발생할 때, 두 사람들이 동원하는 기술적 내용들은 동일하지 않다. 각 허구적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지수는 폴로니우스의 아내를, 반면 영호는 오필리아의 어머니라는 기술적 내용을 갖는다.

이러한 방식의 공지칭은 필자가 제안한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에 관한 제약을 위배하는 사례로 보인다.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름 사용들이 지시체 보존 의도들의 연쇄에 의해서 특정 허구적 캐릭터를 지칭하는 단일한 이름 사용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두 사람들의 이름 사용들은 지시체 보존 의도들의 연쇄에 의해서 작가의 이름 사용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필자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도입한 허구적 이름들은 공지칭에 실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수의 '폴라'와 영호의 '펠마'가 공지칭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직관을 갖는가? 공지칭에 성공한다는 직관은 두 독자들이 갖는 의도들을 차용 의도로 이해하는 경우 해명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지수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만약 셰익스피어가 폴로니우스의 아내를 허구 내에 묘사했다면, 바로 그 허구적 캐릭터를 이름 '폴라'를 통해 지칭하고자 의도한다. 반면 영호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만약 셰익스피어가 오필리아의 어머니를 허구 내에 묘사하였다면, 바로 그 허구적 캐릭터를 이름 '펠마'를 통해 지칭하고자 의도한다. 이때 두 이름들이 공지칭에 성공한다는 직관은 다음과 같은 반사실적 조건문에 의해서 지지된다; 만약 셰익스피어가 폴로니우스의 아내이자 오필리아의 어머니를 허구 내에 묘사하였다면, 두 사람들이 가진 차용 의도들에 의해서 각각이 붙인 이름들('폴라'와 '펠마')은 동일한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에 성공할 것이다. 공지칭에 성공한다는 직관은 두 이름 사용자들이 실제로는 창조되지 않았지만 작가에 의해서 창조될 법한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각각 차용하고자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그러한 허구적 캐릭터를 창조하지 않았으므로, 두 허구적 이름 사용들은 공지칭에 실패한다.

나가면서

본고의 핵심 목표는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및 허구적 이름들의 공지칭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필자의 핵심 주장들을 다시 정리해보자. 필자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실재론의 노선들 중,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창조주의를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토마슨 및 새먼 등의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허구적 캐릭터는 무엇인가? 토마슨에 따르면, 허구적 캐릭터는 추상적 인공물이다. 그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우연적 존재자로서 여러 대상들(작가의 창조 활동 및 허구 작품)에 의존하는 존재자이다.

나아가 허구적 캐릭터는 허구적 인물과 구분된다. 새먼 및 프리델 식의 창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베이커가 221번지 B호에 거주하는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러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할 것이다. 창조주의는 그러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적 직관을 포섭한다. 반면 베이커가 221번지 B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허구적 캐릭터*가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창조주의자들은 기쁘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답변할 것이다. 창조주의에 따르면 허구 작품에 사립 탐정으로 묘사되는 홈즈가 존재할 뿐, 사립 탐정인 홈즈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허구적 캐릭터는 독자들이 특정한 상상을 수행하도록 봉사하는 추상적 인공물이자 일종의 *장치*이며, 그것은 허구와 관련된 여러 철학적 문제들(허구적 이름의 지칭 및 공지칭 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서 기능한다. 정리하자면 허구적 대상이 존재한다는 실재론은 일견 그럴듯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이나 창조주의자들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허구적 캐릭터의 정체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본다면 그들이 존재론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허구적 캐릭터는 일상적 직관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해하다.

그렇다면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채택하였을 때, 어떻게 허구적 이름의 지칭이 가능한가? 우선 명명식에서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인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필자는 그것이 명명자가 제시하는 기술적 의도에 의해서 가능함을 주장한다. 허구적 이름의 명명식은,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가장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한 허구적 대상에 대해 상상

하는 경우, 우리는 가장 맥락 하에서 그것이 이러저러함을 상상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은 허구적 이름 역시 다른 허구 내 묘사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맥락 하에 붙여진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명자의 실제 이름 사용 방식을 검토해보면, 명명자가 발생시킨 명명식은 가장 하에 놓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허구적 이름의 실제 사용 방식에서 드러나는 명명자의 믿음들을 가장 정합적인 것으로 추론하자면, 명명자는 단순히 특정 속성들을 단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속성들을 만족한다고 *가장되는* 것에 허구적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명명자는 특수한 형태의 기술구들의 만족 관계에 호소하여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특정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의 특정과 관련된 토마슨의 문제를 적절히 설명한다.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호소하는 토마슨의 지시체-결정 방식은 최초의 명명식에서 일어났어야 하는 과제의 일부를 후속 이름 사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토마슨에 따르면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번 이름의 전달이 발생할 때마다 이름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이름의 지시체를 동기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토마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발화 맥락 또는 이름 사용자의 의도에 대한 세심한 주목"으로 나타난다. (Thomasson 1999: 5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인과적 모델의 설명과 달리,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에게 비교적 많은 과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토마슨의 주장이 지칭에 관한 인과적 모델이 제시하였던 중요한 교훈, 즉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은 빈약하거나 또는 잘못된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름을 전달해주었던 이름 사용자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기를 의도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칭에 성공할 수 있다는 주요한 관찰을 잘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필자는 허구적 이름의 경우에도 최초의 이름 사용인 명명식에서 요구되었던 핵심 과제, 즉 단일한 지시체를 특정하는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필자가 제시하는 모델에서는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지적 노력이 부과되지 않는다.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은 이전 이름 사용에 대한 인과적 연결 및 지시체 보존 의도만으로도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지칭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인과적 모델이 제시하였던 교훈들을 분명하게 내장하고

있다.

덧붙여 필자가 제안하는 공지칭 조건을 프렌드 및 기존의 여러 입장들과 비교해보자.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허구적 캐릭터는 허구 내의 묘사들과 느슨한 관계만을 맺고 있다. 따라서 허구 내 묘사들에 호소하여 한 허구적 캐릭터를 특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반면 필자가 제시한 공지칭 조건은 허구 내 묘사들에 호소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구체적인 대상에 관한 이름들과 마찬가지로,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들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칭에 성공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대한 다양한 속성들을 귀속시키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필자의 허구적 캐릭터 지칭 모델이 갖는 몇 가지 이점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구체적 대상에 이름과 통합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허구적 이름의 지칭을 지배하는 규칙들이 일반적 이름을 지배하는 규칙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간주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본고에서 제시된 여러 조건들은 일반적 이름의 지시체-결정 방식에 견주어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허구적 이름의 지칭은 기존의 지시체-결정에 관한 설명의 추가적 이해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편입과 관련된 문학적 관행에서 발생하는 여러 지칭 사례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자유로운 수정을 허용하는 문학적 관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관행을 살펴보았을 때, 허구적 이름의 공지칭에 있어서 이름 사용들의 인과적 연결 및 지시체 보존 의도만을 고려하는 필자의 입장은 이름 사용자들이 동일한 허구적 캐릭터를 자유롭게 수정시키는 문학적 관행을 적절히 포섭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다. 첫 번째 문제는 허구적 이름의 지칭 전환(reference-shift)과 관련된 문제이다. 직접 지칭 이론 하에서 지시체-결정 모델에 대해 에반스가 제시하였던 '마다가스카(Madagascar)' 사례처럼, 허구적 이름의 경우에도 인과적 연결 및 지칭 차용 의도(또는 필자가 제안하는 지시체 보존 의도)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지칭 전환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존재한다.

일단 필자는 허구적 이름과 관련하여 파우츠(Pautz 2008)가 제시하였던 극단적 분기(radical divergence) 사례에 대해서 지칭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파우츠는 구체적인 이름과 인과-의도적* 연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이름 전달에 따라 이름에 결부된 정보들의 점진적 변

화에 의해서 이름의 지시체가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한 사람이 홈즈를 페라리를 운전하는 외과의사로 생각하는 경우, 코난 도일의 홈즈에 대한 지칭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36] 필자는 파우츠와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필자의 입장에 따르면 파우츠가 제시하는 사례에서 후속하는 이름 사용자는 코난 도일의 홈즈에 대한 지칭에는 성공하지만, 단순히 그에 대해 원작과 다른 묘사들을 결부시키고 있는 공지칭 성공 사례에 해당한다.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반례로 생각되는 사례는, 프렌드(Friend 2014: 317-318)가 제시한 '파더 크리스마스(Father Christmas)'와 '산타클로스(Santa Claus)'의 공지칭 사례이다. 둘은 서로 다른 기원(각각 15세기 영국, 19세기 미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름으로 취급된다.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둘이 서로 다른 대상들을 지칭하는 이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파더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와의 공지칭에 성공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사례에 대해서도 필자는 어느 한 그룹의 이름 사용자가 다른 그룹의 이름 사용과 지시체 보존 의도들에 의해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두 이름은 공지칭에 실패한다는 결론을 고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산타클로스 사례에서 공지칭에 성공한다는 일상적 직관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그것은 허구 내 묘사들의 유사성과 이름 사용자의 의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분명히 이해될 수 있다. 반론자들은 허구 내 묘사들의 중첩도를 바탕으로 이름 사용자의 지칭 차용 의도를 추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이름 '파더 크리스마스'를 사용하면서 그 이름과 결부된 기술구들이 이름 '산타클로스'에 결부된 기술들과 대규모 중첩되는 경우, 그러한 기술구들의 중첩을 바탕으로 한 그룹의 이름 사용자들이 지시체 보존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추측한다. 물론 이러한 추측은 일상적인 이름 사용에 있어서 지시체를 분류하는 효율적인 경험적 규칙(rule of thumb)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구들의 중첩이 그 자체로 지시체 차용 의도의 발생을 결정짓지는 못한다. 설령 두 이름들에 결부된 기술구들이 대규모로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허구적 캐릭터 산타클로스와 허구적 캐릭터 파터 크리스마스는 서로 다른 두 대상들이며, 이에 따라 두 이름들은 공지칭에 실패한다. 그 둘

36) 필자의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파우츠의 주장과 달리 극단적 변화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령 2장에서 제시하였던 홈즈를 화성에서 온 외계인으로 묘사하는 사례2와 비교해보라.

은 우연히도 유사한 허구 내 묘사들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장될 뿐이다.[37]

두 번째 문제는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단칭 지칭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필자는 허구적 이름의 지시체-결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명명식에서 기술적 만족 관계에 의한 단일한 허구적 캐릭터의 특정을 주장하였다. 또 이를 통해 발생한 이름이 에반스가 제시하는 '기술적 이름(descriptive name)'이 아님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추상적인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단칭 지칭에 성공하는지 알 수 없다.

한 대상에 대한 단칭 지칭은 그것에 대한 단칭 생각(singular thought)을 가질 때, 그리고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추상적 인공물인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단칭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가? 기존의 면식 이론(acquaintance theory)은 한 대상과 맺는 인과적 관계에 호소하여 대상에 대한 단칭 생각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만약 단칭 생각의 발생 조건이 대상과 맺는 인과적 연결로만 제한된다면, 추상적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단칭 생각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추상적 대상과 인과적 연결은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면식이론에 반하여 어떻게 추상적 인공물인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단칭 생각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다만 고무적인 사실은 최근 여러 입장들에서 인과적 연결을 맺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들뿐만 아니라, 인과적 연결을 맺고 있지 않은 대상들(가령 수와 같은 추상적 대상 등[38])에 대한 단칭 생각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확장된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덧붙여 면식 이론에 대한 반례들을 포섭하는 단칭 생각의 새로운 성립 조건들[39] 역시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단칭 생각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적어도 허구적 캐릭터에 대한 단칭 생각의 가능성이 차단된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두 과제들은 추후에 보다 더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

37) 다만 이러한 결론들을 지지함에 있어서 지칭-전환처럼 보이는 사례들에 대해 반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칭 전환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38) 가령 추상적 대상인 수에 관한 단칭 생각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데이비스의 주장(Daives 2019)를 들 수 있다.

39) 단칭 생각을 위한 보다 완화된 면식 조건을 제시하는 쏘여(Sawyer 2012)나 제션(Jeshion 2010)이 제시하는 인지주의(Cognitivism) 등을 참고하라.

참 고 문 헌

이정규 ms. “Authorial Intention, Readers’ Creation, and Reference Shift”.

Braun, David (1993). “Empty names”. Noûs 27 (4):449-469.

_____ (2005). “Empty names, fictional names, mythical names”. Noûs 39 (4):596 – 631.

Brock, Stuart (2002). Fictionalism about fictional characters. Noûs 36 (1):1 – 21.

_____ (2010). “The creationist fiction: The case against creationism about fictional characters”. Philosophical Review 119 (3):337-364.

Davies, James (2019). “Towards a theory of singular thought about abstract mathematical objects”. Synthese 196 (10):4113-4136.

Donnellan, Keith S. (1974). “Speaking of nothing”. *Philosophical Review* 83 (1):3-31.

Evans, Gareth (1973). “The Causal Theory of Names”.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47 (1):187 – 208.

_____ (1982). *The Varieties of Reference*. Oxford University Press.

Everett, Anthony (2000). “Referentialism and empty names”. in T. Hofweber and A. Everett (eds.). *Empty Names, Fiction, and the Puzzles of Non-Existence*. CSLI Publications. 37-60.

_____ (2013). *The Nonexistent*. Oxford University Press.

Friedell, David (2016). “Abstract Creationism and Authorial Intention”.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74 (2):129-137.

Friend, Stacie (2011). “The great beetle debate: A study in imagining with names”. *Philosophical Studies* 153 (2):183-211.

_____ (2014). “Notions of nothing”. in M. García-Carpintero and G. Martí (eds.). *Empty Representations: Reference and Non-Existence*. Oxford University Press. 307-332.

García-Carpintero, Manuel (2019). “Singular Reference in Fictional Discourse?” *Disputatio* 11 (54):143-177.

_____ (2020). “Co-Identification and Fictional Name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101 (1):3-34.

Jeshion, Robin (2010). “Singular thought: acquaintance, semantic instrumentalism, and cognitivism”. in *New Essays on Singular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105-141.

Kripke, Saul (1980). *Naming and Neces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2013). *Reference and Existence: The John Locke Lec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Kroon, Frederick (2003). “On Pretending that Things Do Not Exist: Evans, Existence, and Existentials”. Dialogue 42 (2):235-.

_____ (2004). “Descriptivism, Pretense, and the Frege-Russell Problems”. Philosophical Review 113 (1):1-30.

Ninan, Dilip (2017). "Names in Fiction". Theoretical Linguistics 43, (1-2):61-70.

Parsons, Terence (1980). *Nonexistent Objects*. Yale University Press.

Pautz, Anna Bjurman (2008). “Fictional coreference as a problem for the pretense theory”. Philosophical Studies 141 (2):147 – 156.

Perry, John (2001). *Reference and Reflexivity*.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

Plantinga, Alvin (1974). *The Nature of Necessity*. Clarendon Press.

Recanati, François (2018). “Fictional, Metafictional, Parafictional”.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18 (1):25-54.

Sainsbury, Mark (2005). *Reference Without Referents*. Clarendon Press.

_____ (2009). *Fiction and Fictionalism*. Routledge.

_____ (2015). “The Same Name”. *Erkenntnis* 80 (S2):195-214.

Salis, Fiora (2013). “Fictional Names and the Problem of Intersubjective Identification”. *Dialectica* 67 (3):283-301.

Searle, John R. (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lmon, Nathan (1998). “Nonexistence”. *Noûs* 32 (3):277-319.

Sawyer, Sarah (2012). “Cognitivism: A New Theory of Singular Thought?”. Mind and Language 27 (3):264-283.

Thomasson, Amie (1999). *Fiction and Metaphys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3). “Speaking of fictional characters”. Dialectica 57 (2):205 – 223.

van Inwagen, Peter (1977). “Creatures of Fiction”.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4 (4):299 - 308.

Walton, Kendall L. (1978). “Fearing fictions”. *Journal of Philosophy* 75 (1):5-27.

_____ (1990). *Mimesis as Make-Believe: On the Foundations of the Representational Arts*. Harvard University Press.

Zalta, Edward N. (1983). *Abstract Objects: An Introduction to Axiomatic Metaphysics*. D. Reidel.

Abstract

Reference of a Fictional Name in light of Creationism

Kyungmin Kang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been thought that fictional objects do not exist. On top of this belief, if we also accept the anti-Meinongian thesis that a name refers to only an object that does exist, then a fictional object cannot be the referent of a fictional name. Additionally, since it is highly implausible to conclude that something else other than a fictional object could be the referent of such a name, a fictional name is an empty name that does not refer to any object.

However, this conclusion that a fictional name is an empty name comes into conflict with the intuitions observed in the actual use of fictional names. For example, when a reader of Conan Doyle's famous fictional work referentially uses the name 'Holmes', it seems that the person successfully refers to Sherlock Holmes. And when another reader uses the same name referentially, it seems that the reader also refers, or co-refers, to the same fictional object referred to by the previous reader. The view that a referent of a fictional name does not exist cannot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of these phenomena. How can it be possible to explain a reference, or co-reference, of a name *to a certain object* when there is no referent of the name?

Reference, or co-reference, of a fictional name can be successfully

explained from the fictional realist perspective. Among the various versions of fictional realism, I employ Creationism advocated by Kripke, Thomasson, and Salmon, among others. According to Creationism, fictional characters do exist. They are abstract artifacts brought into existence in the actual world as a result of an intentional act of their author. In this view, a fictional name might not be an empty name that lacks a referent; instead, it can be a genuine name that refers to a corresponding fictional character.

Yet, accepting the existence of fictional characters is not sufficient to solve all the problems in referring to a fictional character. If a person referentially uses the fictional name 'Holmes', how can the name refer to Conan Doyle's Holmes, not something else? Furthermore, under what condition the very fictional character referred to by this person can also serve as the referent when other people use the name? Such problems remain even if we let fictional characters exist.

In this Master's thesis, I introduce how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while maintaining the Creationist approach.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about reference-fixing and co-reference of fictional names in light of Creationism.

To achieve this primary objective, I describe two distinct phases in the history of a fictional name. The first stage covers the introduction of a fictional name by its initial baptism. The second stage covers the propagation of the introduced name over the course of the subsequent series of name use. I divide the history of a fictional name into two phases because the initial name use and the subsequent name uses are governed by two different relations. A descriptively satisfying relation connects a fictional name and its referent—i.e., a fictional character—in the initial baptism, whereas causal-intentional connections come into play in between individual name uses over the course of the propagation of the established name. In combination, these respective relations help us explain how a referent of a fictional name is determined: a referent of a fictional name is determined to be the

referent uniquely specified by the descriptively satisfying relation in the initial baptism, which is connected with the referential uses of the name through the causal-intentional connections.

This view on the referent determination of a fictional name provides an answer to the problems raised in the existing body of literature. First, the ambiguity problem in Thomasson's extended causal model can be solved. Thomasson's "intra fictional ceremony", which plays the role of baptism, fails to specify a unique fictional character. In contrast, I propose a descriptive intention of a special form to ensure that a unique fictional character is specified. Moreover, in contrast with the views of Friend and some others, my view does not require subsequent speakers to have certain information satisfied by the referent for referring, or co-referring. This is supported by our intuitive judgement on the identity of fictional characters when a preexisting fictional character is imported into new fictional work. By this way, I suggest a compelling explanation of how fictional names refer, or co-refer, to a certain fictional character, while inheriting Creationism's unique understandings of a fictional object and morals of reference-fixing in the Direct Reference Theory.

keywords: **fictional object, fictional name, reference-fixing, co-reference, Creationism, Direct Reference Theory, Pretense Theory**

***Student Number*:** **2018-27623**